

영남루의 내력

영남루중수기(1365)	김 주
소루기(1442)	권 기
영남루기(1460)	신숙주
영남루중수기(1542)	신광한
능파당소기(1542)	신광한
영남루기(1588)	윤의정
영남루중건기(1724)	이희주
영남루중수기(1793)	김광묵
영남루중수기(1806)	김재화
능파당기(1825)	이화연
영남루중수기(1844)	조인영
영남루중수기(1848)	안인일
유영남루기(1768)	유취문
능파당상량문(1642)	이이정
영남루중수상량문(1832)	조기복
영남루중건상량문(1844)	김홍근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365)

김 주(金 湊)⁶⁹⁴

밀양은 경상도의 명승지인데, 그 관아 동편에 영남루라는 누각이 있다. 긴 내를 굽어 당기고 넓은 들을 삼켜 한 고을에서도 더욱 뛰어난 경관이다. 을사년(1365) 봄에 나는 이곳 수령으로 나갔다. 일을 보는 여가에 이 누각을 구경하였더니, 규모가 비좁고 누추하며 집은 작고 처마는 짧아서 바람이 비껴 불면 비가 들치고 해가 기울면 별이 들어, 올라오면 즐겁지만 메마르고 축축한 느낌을 없애기 어려웠다.

예전 모습을 바꾸고자 모두 철거하였으나 그만한 목수를 찾기 어려웠다. 고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 고을의 관노(官奴)로서 솜씨 좋은 목수로 알려진 자가 있는데 이미 늙고 병들어 노역을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누워서 지시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아전을 시켜 불러오게 하여, 그 연고를 말하고는 진양(晉陽)으로 보내어 축석루(矗石樓)의 제도를 그려오게 하였다. 그는 돌아와서 병이 조금 나았고, 또 일꾼들을 거느리고 산에 들어가 재목을 취하면서 날로 건강을 되찾더니 능히 일어나 걸었으며, 척도를 재고 먹줄을 살피며 공사를 끝낼 즈음에는 드디어 아주 병이 나아버렸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는가!

지붕을 반듯하게 넓히고 겹처마로 깊숙하게 하니 헌함과 기둥이 크게 넓게 트여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단청을 베풀어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게 하였다. 그렇게 한 뒤로는 비바람이 핼박할 걱정도 없고, 따가운 햇볕에 그을릴 염려도 없게 되었다. 손님과 주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술잔을 번갈아 주고받으며 주선하는 동작에 여유가 있게 되었으며, 올라와 휘파람 불고 시를 읊으며 가슴이 시원하게 되었으니, 대개 명승지의 고상한 운치를 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직책이 바뀌어 조정으로 돌아간지 8년이 지난 임자년(1371)에 외람되이 안찰사로 선발되었고, 또 18년이 지난 기사년(1389)에는 외람되이 관찰사의 명을 받아, 이 누각에 올라 온 것이 이미 두 번이나 되었다. 돌아보면 경치는 여전하지만 느낌은 더욱 새롭다. 산은 멀고 들을 넓으며 물은 멀고 하늘은 긴데, 바람과 구름의 바뀌는 태깅이 봄 여름으로 달리 보이는 것은 참으로 조화의 무궁함이요, 농꾼은 전답에서 일하고 목동은 언덕에서 방목하고 어부는 물에서 나무꾼은 산에서 구부정하게 오고가며 앞뒤로 이어지니, 그 사이에서 인사가 바뀌어 가는 것 또한 이와 더불어 무궁하다.

694) 김주(金湊; ?-1404): 낙안(樂安) 사람으로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고려조의 문과에 급제하여 공민왕 때 성균직강, 정당문학을 거쳐 문화찬성사에 이르렀고, 조선이 개국한 뒤 참찬문학부사로서 한양 도성을 축조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였다. 지정(至正) 을사년(1365)에 밀양 지군사(知郡事)로 부임하여 영남루를 중수하였다.

지난날 내가 고을을 맡았을 적에는 나이도 젊고 기상도 침예하였으나, 안찰사가 되어 왔을 적에는 이미 예전 모습이 아니었는데, 더구나 오늘에 와서는 다시 더욱 노쇠하였다. 이기⁶⁹⁵⁾ 남짓한 세월에 불그스럼하던 안색은 변하여 창백하게 되었고, 검던 머리는 변하여 희끗희끗하게 되었다. 누각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모두 예전 그대로이나 누각 가운데 보는 자는 이미 옛 모습이 아니니, 어찌 바람에 임하여 재삼 탄식하지 않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이는 단지 작은 소감일 뿐이다.

수령이 되었던 날은 지위가 낮고 힘이 작았지만, 안찰사가 되었을 적에는 지위가 이미 높아졌고 힘도 이미 커져서 당시에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에 와서는 지위가 이미 더욱 높아졌고 힘도 더욱 커졌으니 더욱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 도의 권력을 조종하며 일기 동안의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도, 국가에 보탬이 되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여 사람들이 이목에 뚜렷하고 금석에 명백하게 새겨서 이 누각의 정치와 더불어 후세에 무궁히 남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더욱 한탄스럽다. 그러므로 벽에 기록하여 내 뜻을 적어 둔다.

密城在慶尙爲名區 而其廨宇東有樓 曰嶺南 俯控長川 平吞曠野 尤爲一郡之勝. 乙巳之春 予出爲宰 視事之暇 乃觀斯樓 制度隘陋 屋小簷短 風斜雨入 日側陽來 雖樂登臨 難祛燥濕. 思欲革舊 悉皆撤去 難其工匠. 咨於郡人 僉曰 有郡奴素稱良匠 既老且病 難以執役 猶可臥而指授. 余乃使吏致之 語以其故 令遣晉陽 使圖臺石之制. 及其既還 病始小愈 又率徒役 入山取材 則日以差彊 能起而步. 量其尺度 視其繩墨 至畢其功 而遂以永瘳. 斯豈非天幸歟. 方屋以廣 重簷以邃 軒楹宏敞 風雨攸除. 乃施丹雘 匪侈匪陋. 然後風雨不患其逼 畏景不患其爍. 賓主同歡 獻酬交作 周旋動靜 猶有餘地 登臨嘯詠 胸次恢廓. 盖有以增勝景之高致也. 見代還朝 越八年壬子 濫承按部之選, 又十有八年己巳 亦忝觀察之命 來登是樓 已至于再, 顧瞻如舊 感歎彌新. 山遙野濶 水遠天長 風雲變態 春夏異觀者 固造化之無窮, 而農勤于壟 牧放于原 漁者于水 樵者于山 僂僂往來 前後絡繹 人事之代謝于其間者 亦與之無窮矣. 昔予之爲宰也 年少氣銳, 及其出按 已非其舊 況至今日 又益衰矣. 俯仰二紀之餘 顏之渥者 變而蒼 髮之青者 化而斑. 樓中之寓目 皆舊觀 而寓目於樓中者 已非舊態 安得不臨風而三歎也. 雖然 此特所感之小者耳. 若夫爲宰之日 位卑力小 爲按部也 位既益崇 而力既博 似可以有爲於時矣. 及至於今 位既益崇 而力亦益博 尤可以有爲於世矣, 操縱一道

695) 이기(二紀): 1기는 12년이다. 2기는 24년.

之權 經歷一紀之久 未能有一事裨於國 而裕於民 表表在耳目 明明刊金石 可與斯樓之景 同垂於無窮者 益可歎矣 故誌于壁 以寫予志.

소루기(召樓記, 1442)

권 기(權 技)⁶⁹⁶⁾

영남지방에 자랑할 만한 누각으로 웅대한 곳이 하나 둘이 아니다. 진주의 축석루(矗石樓)와 김해의 연자루(燕子樓)와 울산의 태화루(太和樓) 및 내고향 안동의 영호루(映湖樓)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밀양의 누각을 영남루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이 여러 고을 누각을 내려다보며 한 방면의 명성을 독차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곳 경치를 듣기는 하였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지 오래였다. 신유년(1441)에 예천(醴泉)의 상국 권맹손(權孟孫)이 경기도안찰사로 있다가 이도로 옮겨갔는데, 나는 외람되어 그 막하에 소속되었다. 이듬해 임술년(1442) 봄에 밀양에 이르러 공을 따라 누각에 올랐고, 문서를 처리하는 여가에 살펴보았더니 기묘한 경관과 빼어난 운치는 과연 듣던 바와 같아서, 비단 남방의 으뜸일 뿐 아니라 곧바로 등왕각(滕王閣)이나 악양루(岳陽樓)와도 서로 견주어도 오히려 나은 점이 있었다.

그런데 누각 서쪽에 또 한 누각이 있어 강물에 더욱 가까웠다. 읍 사람에게 물었더니, “부사 안질(安質) 공이 옛 터에다 지은 것인데, 읍 사람들은 소루(小樓)라고 부르나 이름은 아직 없다”고 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무릇 작다는 것은 큰 것을 대하여 말함이다. 대개 영남루가 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리라. 그러나 건물의 규모가 비록 옛 누각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함과 기둥을 활짝 열어 놓아 자리를 옮겨 기대보면 편안하고 안온하다. 설사 높은 관원이 한꺼번에 들이닥쳐도 각기 올라와 잔치하고 쉴 곳이 있으니, 이 누각을 지은 의도는 참으로 작게 여길 수 없다.

더구나 이곳에 올라 바라보면 비 무성한 숲과 길다란 대나무, 이어진 봉우리와 첩첩한 산, 먼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 천리 멀리 비추는 밝은 달빛은 영남루와 동일한 경관이다. 게다가 가까이는 시원한 바람소리가 현함에 침노하고 맑은 물결이 강 언덕에 부딪치며, 멀리로는 마암(馬巖)에서 소먹이는 목동이나 우도(牛島)에서 경작하는 농부가 숲가에 바로 바라보이는 데는 또한 예전 누각보다 나은 점이 있다. 어찌 작다는 말로 불러서야 되겠는

696) 권기(權技): 자는 유지(有之), 안동인으로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아우인 매촌(梅村) 우(遇)의 아들이다. 세종 임자년(1432)에 동진사(同進士)로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이 사간(司諫)에 이르렀다.

가? 이곳은 마땅히 좋은 이름으로 편액을 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음을 그대로 하되 글자를 고쳐서 소루(召樓)라고 하였으니, 소(小)를 소(召)로 바꾼 것이다. 어찌 알라! 이 누각을 지은 자가 백성을 보살피는데 애를 쓰고, 송사를 결단하는 데 분명하여 고을 사람들이 소부(召父)라고 칭하고, 이 누각에 오르는 자가 모두 남쪽 지방의 선화(宣化)를 담당하여 소백(召伯)의 옛날 정치를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소루(召樓)라고 지목하여도 그 또한 거의 가까울 것이다.

樓閣之誇 雄於嶺南者 非一. 有若晉之瀛石 金之燕子 蔚之太和 與夫吾鄉之暎湖 是已. 獨於密之樓 號爲嶺南 豈其俯視諸州 擅名勝於一方耶. 余聞形勝 未得寓目者 久矣. 歲辛酉 醴泉權相國孟孫 以京畿按使 移節是道, 技叨幕下. 明年壬戌春 行至密山 從公于樓 簿書之餘 縱目以視. 奇觀勝賞 果如所聞 非惟甲於南方 直與滕王之閣 岳陽之樓 相爲頡頏 而抑有勝焉. 樓之西 又有一樓 益近水焉. 訊之邑人 曰府使安質 就舊址而營之 邑人稱小樓 而未有名焉. 余曰 凡稱小者 對大而言. 蓋緣有嶺南樓 而云爾. 然而結構之制 雖未及舊樓 軒楹開豁 徙倚便穩. 設使軒蓋并臻 各有登臨宴息之所 則斯樓之作 誠不可小之也 而況登斯以望 茂林脩竹 連峰疊嶂 長煙一空 皓月千里 與嶺南同一觀也. 至若近而爽籟侵軒 清湍激岸 遠而牧者于馬巖 耕者于牛島 直望于林表 則又有加於舊樓者. 奚可以小而稱也. 是宜扁以美額 因其音而改其字 曰召樓. 以召易小爾. 惡知之 營是樓者 勞於撫字 明於聽斷 州人稱之召父 登是樓者 率皆宣化南方 遵召伯之舊政者 則目之以召 其亦庶幾乎.

영남루기(嶺南樓記, 1460)

신숙주(申叔舟)⁶⁹⁷

밀양군수 강숙경(姜叔卿) 군이 이미 영남루를 새로 짓고서는 나에게 서찰을 보내어 이르기를, “누각은 읍의 좋은 경관인데 험소하고 기울어져 이름에 걸맞지 않았다. 지금 새로 지어 모두 네 칸에다 빙 둘러 도리를 보충하고 단청을 하여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다. 나의 가형께서 일찍이 기문을 지어주기로 허락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나의 가형을 아는 이로

697)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자는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保閑齋), 고령인으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세종 신유년(1441)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가고, 세조의 즉위를 도와 고령부원군에 책봉되었으며 문형(文衡)을 역임하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대 만한 이가 없다. 나를 위해 기문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 아아, 기문을 멀리서도 지을 수 있는가?

강군은 진산군(晉山君) 문경공(文敬公)의 모제(母弟)이다. 상감께서 공을 재상으로 임용하시고는 공의 모친이 진주에 있는데 노쇠하여 모셔올 수 없음을 민망히 여기고는, 밀양이 진주에 가깝다고 강군을 군수로 내보내어 봉양하게 하고, 또 공에게 해마다 한 번씩 돌아가 근친(覲親)하도록 허락하였다. 경진년(1460)에 공이 근친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가 고을살이하는 것이 혜택을 베풀지 않고서도 백성들이 사랑하고, 가혹하게 하지 않고서도 백성들이 두려워하니, 일이 닦이고 거행되었다. 이에 그 예전 누각을 새롭게 하여 더불어 비교할 데 없이 크고 시원하게 넓혔는데, 큰 공사를 하면서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도 이루었다. 그 고을살이하는 것은 실로 내가 미칠 수 없는 바이다. 나는 그가 능히 해 내는 것을 기뻐하여 기문을 짓기로 허락하고, 이미 초고를 만들었다” 하고는 보여주었다. 공은 이윽고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공의 아들 윤범(允範)에게 초고에 대하여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였다. 오호라, 애석하도다. 이제 강군의 서찰을 받고 멀리 글을 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찌 차마 짓겠는가? 그러나 또한 기문을 지어 공의 뜻을 차마 이루지 아니할 수도 없다.

나는 공을 따라 다닌 지 수십 년이지마는 사람을 함부로 칭찬하거나 헐뜯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물며 친아우에 대해서랴! 그러니 강군의 능력은 또한 미더운 것이다. 무릇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도 백성이 사랑하는 것은 인자한 은덕이 있음이요, 가혹하게 하지 않아도 백성이 두려워함은 위엄이 있음이며, 일이 닦여지고 거행됨은 정치가 민첩하게 반응함이니, 인자한 은덕과 위엄이 아울러 드러나고 민첩하게 시행한다면 그 효과가 어찌 누각 하나에 그치고 말겠으며, 한 고을에 그치고 말겠는가? 이는 참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령 남쪽은 예전 신라의 땅으로, 읍이 된 곳이 대소 60여 곳의 고을이 있고, 고을마다 놀며 관람할 누각이 없는 곳이 없는데, 모두가 보이는 경관으로 뜻을 취하여 명명하였다. 다만 이 누각이 영남이란 이름을 얻었으니, 그곳 강산 좋은 경치의 아름다움이 영남에 으뜸가기 때문임은 올라가 관람하지 않아도 멀리서 알 수 있다. 다만 그 강산의 좋은 경치에다가 이제 크고 시원하게 넓혀 놓은 누각은 또한 족히 강산만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또한 기록할 만한 일이다.

密陽守姜君叔卿 既新嶺南樓 書遺僕曰 樓爲邑勝觀 而窄陋傾側 不稱於名. 今爲新之 凡三楹 周以補棟 施以丹雘 不侈不陋. 吾兄嘗許爲記而未遂 知吾兄 莫子若也 請爲我記. 嘻 記可遙而爲之乎哉. 姜君晉山文景公之母弟. 上之任公爲相也 憫公母之在晉州 老不可致 則以密近晉 出君爲守 以奉養之. 又許公歲一歸觀. 庚辰之歲 公觀

還語僕曰 吾弟爲吏 不惠而愛 不苛而畏 事修廢舉 乃新其舊樓 宏敞開廣 無與爲比 興大功力 不煩而集 其爲吏 實吾所不可及也. 吾喜其能 許爲記 已草矣, 相與示之. 公尋病不起. 問公之子允範草則曰不知. 嗚呼惜哉. 今承君書 非徒遙之爲難 尙忍爲之乎哉. 然亦不得忍不爲之記 以卒公志.

僕從公數十年 未嘗見輕爲毀譽於人 況親弟乎. 君之能 亦可信矣. 夫不惠而愛 有仁恩也, 不苛而畏 有威重也, 事修廢舉 治之敏也, 仁威并著 而敏以行之 其所及 豈止一樓而已哉. 一邑而已哉. 是固不可不記. 況乎嶺之南 前古爲新羅之地. 爲邑者 大小六十餘官 莫不有樓榭遊觀之所 而率以所見取義名之, 獨茲樓得嶺南爲名 則其江山勝景之美 甲嶺南也 不待登覽可遙辨矣. 特以其江山勝景 而今之宏敞開廣者 又足使江山不獨專占其美. 茲亦可記也已.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542)

신광한(申光漢)

밀양은 큰 고을로서 영남에서도 웅대한 곳이라 일컬어진다. 토질은 농사에 알맞고 산에는 밤이 많으며 물에는 좋은 물고기가 생산된다. 전하는 말에 최생(崔生)이란 사람은 죽으면서도 사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이 많고 땅이 커서 이 고을을 담당하는 자가 참으로 대현(大賢)이 아니면 정치 교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곳이다. 중년에 현(縣)으로 호칭을 낮추었다가 이제 다시 부(府)로 복구한 지 오래 되지 않았기에, 조정에서는 이곳 수령에 적합한 인물을 어렵게 여겼는데, 박세후(朴世熙)⁶⁹⁸ 공이 선발되었다.

박공은 부사가 된지 4년인데, 그 많은 주민을 풍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한 다음이 교화를 더하였는데, 교화가 시행됨에 막힘이 없어, 주민들은 비로소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고을에서는 우애하며, 관청에서는 숭사하는 문서가 없고 들에서는 노래를 불렀다. 이에 남은 힘으로 폐기되고 실추된 것을 다듬었다.

밀양부에 이 누각이 있는 지는 160년이다. 처음에 군사(郡事) 김주(金湊)가 창건하였고, 부사 안질(安質)이 중수하였다. 그 뒤 부사 강숙경(姜叔卿)이 그 규모를 넓혀서 고쳤는데 이 또한 이미 80여 년이라, 흔들리는 도리는 날로 기울고, 허물어진 계단은 날로 무너지며, 바래진 단청은 날로 흐려졌다.

698) 박세후(朴世熙; 1493-1550): 자는 중온(仲溫), 호는 인재(認齋), 상주인이다. 중종 기묘년(1519)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가 잠시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파직되고, 그 뒤 다시 등용되어 중종 기해년(1539)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였다.

박공은 답답한 마음을 풀고 지체된 기운을 끌어낸다는 누각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걱정하고, 또 과객들이 올라가 조망하는 데 어려움을 염려하여, 평소에 오가는 진사 구유온(仇有溫)과 의논하였더니, 구생은 이를 협찬하였다.

가정 21년 임인(1542) 가을에 감사 임백령(林伯齡) 공에게 청하여 그 옛 건물을 바꾸어 새롭게 하였다. 관리는 격려하고 장인은 재능이 있어서 비록 사치스럽게 하지 말라 경계하였으나 저도 모르게 장엄하고 화려하게 되었다. 들보를 올릴 무렵에 구생으로 하여금 상량문을 짓게 하였고, 낙성한 뒤에 누각의 고사를 살펴 나에게 서찰을 보내어 그 기문을 짓게 하였다.

나는 말한다. 옛날 등왕각에 왕발(王勃)이 서문을 짓고 한유(韓愈)가 기문을 지었는데, 한유의 기문에는 “이른바 등왕각이란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말이 있었다. 이제 구생의 상량문을 보니 죽히 왕발의 뒤를 이을 만 한데, 박부사는 또 나를 한유로 만들려고 한다. 한유는 참으로 글을 잘 지었으나, 등왕각을 보지 않고 기록하였기에 강산의 아름다움이나 누각에 올라 조망하는 낙은 빠뜨려 놓았다. 나와 같은 자는 보지도 못했고 글도 치졸하니 이 누각의 기문을 짓는 일을 어찌 감당하랴.

대저 누관(樓觀)을 짓는 것은 비록 단지 경관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지만 또한 명승지에다 설치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명명하는 것도 반드시 그 명승지를 취한다. 조령 남쪽에 누관의 명승지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그 곳에서 볼 수 있는 경치를 취하여 명명한 데 불과하니, 진주의 축석루(矗石樓)나 안동의 영호루(映湖樓)가 모두 그것이다. 그런데 이 누각은 곧바로 영남이라고 명명하였다. 대개 영남의 빼어난 경관이 오로지 이곳에 있음을 일컬음이다. 내 비록 본 적이 없지만 좋은 명칭으로 말미암아 이 누각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여긴다.

아아, 명승지가 항상 그대로 있지 아니함은 옛 사람들이 슬퍼하던 바이며, 사물이 폐기되었다가 일어나는 것 또한 사물로서는 고유한 일이다. 명승지가 항상 그대로 있지 아니하기에 이 누각이 폐기되었고, 이 누각이 폐기되자 박공이 일으켰다. 누각은 비록 폐기되고 일어나는 데 다름이 있지만, 지는 노을과 외로운 따오기, 가을 물과 먼 하늘은 반드시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리라. 나는 이 누각에 비록 공을 따라 노닐지는 못했지만 공을 위하여 시를 읊을 수는 있다 하겠다.

密陽號爲鉅府 雄于嶺南. 土宜稼 山多栗 水產美魚. 言傳 崔生且死 而猶慕. 然物衆地大 爲是府者 苟非大賢 治化所難究. 民有殺其親者 中間降號爲縣 今復爲府者 未久, 朝廷難其守 而朴侯世熙爲選. 朴侯爲府且四年 因其民之庶而富之 既富而加教 教之行無所壅 民始知入孝而出弟 公無訟牒 野有謳謠. 於是 乃以餘刃 修及廢墜. 府之有斯樓 百六十年. 其始郡事金湊創之 府使安質修之 後府使姜淑卿 恢其制而改之 亦已八十餘年矣. 棟之撓者日益傾 階之圯者日

益頽 丹腹之漫漶者日益渝. 侯既患宣鬱導滯之莫稱 又慮過客之病於登眺 謀及常與游進士仇有溫. 仇生從而贊之. 嘉靖二十有一年壬寅秋 請諸監司林公百齡 易其舊而新之. 吏勸工良 雖戒以勿奢 不自覺其過於壯麗. 梁且上 令仇生爲之文 既成而落之. 按樓之故 馳書與予 請記其事.

予謂古有滕王閣 王勃爲之序 韓愈又爲之記 而曰未嘗觀所謂滕王閣者. 今觀仇生之文 足繼王勃 而侯又欲使吾爲韓愈. 韓愈固能於文 然未觀而記之 尙闕於江山之美 登望之樂, 如余者 觀未及而文且拙於記茲樓也奚. 大抵樓觀之作 雖非止爲觀美 亦多因勝地而設. 故名之者 必取其勝. 嶺之南 樓觀之勝者 非一二 不過取其所寓之景而名之, 若晉之蠡石 福之映湖者 皆是已 而斯樓也 直以嶺南名之. 蓋謂嶺南之勝 專在于茲也. 余雖未嘗觀 而因名之善 得斯樓之最勝也. 嗟乎, 勝地不常 古人所悲 物之廢興 亦物之所固有也. 勝地不常 故茲樓廢 茲樓既廢 而朴侯興之 樓雖有廢興之殊 而落霞孤鶩 秋水長天 必無古今之異. 吾於茲樓 雖未獲從侯遊 亦可爲侯賦之云.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 1542)⁶⁹⁹⁾

신광한

영남루의 동북쪽에 예전에 당이 있어 이름을 망호당(望湖堂)이라고 하였다. 홍치(弘治) 연간에 부사 김영추(金永鍾)가 창건하여 빈객이 쉬고 자는 곳으로 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였다. 그러나 망호당은 낮은데 영남루는 높아서 빈객이 이 영남루 누마루에서 잠을 자려 가자면 오르내리기에 매우 불편하였다. 한편으로 지은 지 오래되어 터가 허물어지고 도리가 기울어져 거처하기에 거의 적당치 못하였다. 부사 박공이 이를 안타까워하여 그 옛 건물을 걷어내어 조금 남쪽으로 옮겨 석대(石臺)를 쌓아 그 터를 높이고, 옛날 제도에 비교하여 한 칸 정도 증축하였다. 이리하여 당은 비로소 누마루와 높이가 같아지게 되었다. 그 삼면을 장식하여 단청을 올리고, 그 남편을 띄워서 강물을 임하게 하고, 이름을 고쳐 능파당(凌波堂)이라 하였다. 높고 밝으며 상쾌하게 트였으니 정녕 이른바 이제서야 좋은 손을 맞이한다는 말에 맞게 되었다.

樓之東北隅 舊有堂 名曰望湖. 在弘治年中 府使金永鍾創之 爲賓

699) 이 글은 《밀주승람》에 박세후(朴世熙)의 기문으로 실려 있으나, 《기재집(企齋集)》에 이미 올라 있으므로 문집의 기록을 취하였다.

客燕寢之所。固爲美制也。然堂卑而樓高 賓客之由是樓按宿者 甚妨於陟降。且作之日月既舊 基圯棟傾 殆不愜居處。朴侯病之 撤其舊少移于南 築石臺 崇其址。視舊制 增加一間。堂始得與樓聯楹。飾其三面而丹牖之。虛其南 以臨江流 改名曰凌波堂。高明爽豁 正所謂於焉嘉客者也。

영남루기(嶺南樓記, 1588)

윤의정(尹義貞)⁷⁰⁰

모당 홍이상이 영백으로서 기문을 청하였다.[洪慕堂履祥 以嶺伯請記]

누관 중에 크고 장대 화려한 것은 반드시 명승지에 있어야 천하에 이름을 떨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주(荊州)에 동정호(洞庭湖)가 있어서 악양루가 고금에 명성을 떨칠 수 있었고, 홍도(洪都)는 삼강(三江)을 띠고 있어서 등왕각이 천하에 으뜸이 될 수 있었다. 남수정(攬秀亭)이나 제양루(濟陽樓)나 저연정(渚淵亭)이나 이락정(二樂亭) 등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이런 누각들은 반드시 천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얻어 시를 읊어 형용한 다음에라야 천하와 고금에 큰 명성을 떨칠 수가 있었다. 무릇 이러하기에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누각이 없는 것은 불행이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누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음은 또한 불행이다.

아아, 악양루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사람⁷⁰¹이 있어서 고금에 명성을 떨쳤고, 등왕각은 수놓은 저고리에 아롱진 붓을 가진 동자⁷⁰²가 있어서 천하에 울릴 수 있었다.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누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함은 그 장소의 불행이요 누각의 불행이다.

천지의 동쪽 우리나라 남쪽은 실로 웅대하게 솟은 산과 거대한 강물의 정기가 모인 곳인데, 그 중에서도 응천(凝川)의 산수가 으뜸이다. 그 산의 맥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그 한 가닥이 바닷가를 따라 내려오며 동쪽으로 달려 풍악(楓岳)이 되고 철원이 되고 선악(仙岳)이 되었다가 천번 만번 감돌아서 동쪽으로 오다가 남쪽으로, 남쪽으로 오다가 서쪽으로 달려, 높은

700) 윤의정(尹義貞; 1525-?): 자는 이직(而直), 호는 지령(芝嶺), 파평인이다. 예안에 살면서 유서애(柳西厓) 정약포(鄭藥圃) 등과 교유하였다. 이 기문은 《지령선생문집(芝嶺先生文集)》 권3에 실려 있다.

701)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범중엄(范仲淹)이 지은 <악양루기(岳陽樓記)>에 이른바 “천하의 근심을 천하사람보다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낙을 천하사람보다 나중에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이라 한 구절을 일컫는다.

702) 아롱진 붓을 가진 동자: <등왕각서(滕王閣序)>는 글재주가 높은 소년 왕발(王勃)이 지었다.

산 큰 언덕이 줄기줄기 땃혔다가 곧바로 남방으로 걸터앉아 한 머리를 땀은 곳이 밀양이다.

그 남쪽에 고을 하나를 열고 멈추니, 산의 높은 곳은 더욱 높고 물이 맑은 것은 더욱 맑으며, 평원과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긴 숲과 짧은 산기슭은 보는 곳마다 특이한 형상을 이루었으니, 참으로 동남 지방의 명승지이다. 그 사이에 우뚝 솟은 누각이 있는데, 건물의 웅장함이나 대청과 문미(門楣)의 화려함은 곧바로 천하의 악양루나 등왕각과 어깨를 견준다.

그러나 지는 노을 외로운 따오기를 읊은 구절이 금일까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조정과 강호의 근심을 말한 글을 오늘까지도 볼 수 없음은 이 누각의 한 불행이다. 순찰사 상공 선생께서 이 누각에 유람하게 되니, 순찰사의 장막이 머물러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내뱉는 말에 듣는 이들은 마음으로 취하며, 문장과 덕망이 범희문(范希文)에 견줄만하고 아름다운 시구와 글은 왕씨의 아들보다 훨씬 뛰어나니 이는 누각의 크다란 행운이다. 이런 누각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이 사람의 영광이요 다행이라 할 것이다. 기축 가을 7월 15일에 기록하노라.

樓觀之傑然壯麗者 必得地之形勝 然後可以名於天下. 故荊而有洞湖 而岳樓得以名於古今, 洪而襟三江而滕閣得以甲於天下. 其曰攬秀 其曰濟陽 其曰渚淵 其曰二樂 何可勝數 而必得天下所仰望之人而形容於吟詠之餘 然後得以大名於天下古今. 夫如是 則有是地而無是樓 不幸也. 有是地 有是樓 而無是人 亦不幸也. 不幸而不得其人而有是地有是樓 豈但其地其樓之不幸 實吾人之不幸也. 噫 岳樓得愛國憂民之人 而名於古今, 滕閣得繡襦斑管之童 而鳴於天下. 有是地有是樓 而不得其人 則地不幸也. 樓不幸也. 天地之東 我國之南 實雄峙鉅流之所萃 而凝川之山水爲第一. 其山則發於白頭 其一支沿海濱 東走爲楓岳 爲鐵原爲仙岳 千轉萬回 東而南 南而西, 高山大陸 纍纍然 直跨于南服 而結一頭曰密陽 之陽關一府而止. 山之高者益高 水之清者益清 平原曠野 極目無際 長林短麓 隨視異狀 眞東南勝地也. 有樓傑然乎其間 棟宇之壯 軒楣之華 直與岳樓滕閣比肩於天下矣. 然落霞孤鶩之句 不得聞於今日 廟堂江湖之憂 不得見於今日 此樓之一不幸也. 何幸 千有餘年 相公先生 得以遊是樓 幃帷之駐 觀者屬目 咳唾之餘 聽者醉心 文章德望 比擬乎希文 繡句錦章 超逸乎王子 此樓之一大幸也. 有是樓 有是地 有是人 得見於今日 亦此生之榮幸也夫. 己丑秋七月十五日記.

영남루중건기(嶺南樓重建記, 1724)

이희주(李熙疇)

영남루는 영남 제일의 명승지로서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린 곳이다. 영남루가 중간에 우뚝 높이 솟아 있고, 능파각과 침류당이 좌우 날개가 되어 거대한 건축과 뛰어난 경관이 강산을 훌륭하게 장식하여 한 지방의 칭송을 받고 있다. 임인년 봄에 불행히도 화재의 재난을 당하여 영남루와 능파각 침류당이 동시에 불이 붙어 모조리 하나의 잿더미가 되니, 경치가 쓸쓸하고 나그네들이 탄식하며 강산도 이로부터 자랑스런 모습이 없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 해 가을에 달성(達城) 통판(通判)으로 있다가 편도(便道)의 관직으로 승진하여 왔는데, 풍물은 의구하나 남은 터는 황량하고, 맹렬한 화염에 불타고 겨우 남은 깨어진 주춧돌과 무너진 기왓장만 있어서, 홀연 예전 등림하였을 때가 생각나 자취를 쓰다듬으며 탄식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쌓인 잿더미를 쓸어내고 땅에 자리를 깔고 앉아 개연히 고쳐 지을 뜻을 가졌다.

그리하여 장인을 불러 의논하고 먼저 능파각 누각 하나만 일으키니 공사는 몇 십일 만에 끝났다. 그날은 마침 동지였다. 그날 저녁 외표제(外表弟)인 시독관(侍讀官) 윤유(尹游)가 좌도의 장시관(掌試官)으로 와서 시험을 마치고 길을 돌려 내방하였고, 영산(靈山) 수령인 이사운(李師尹) 군과 자여찰방(自如察訪)인 이중관(李重觀) 군이 모두 모였다. 이 능파각에서 서로 재미있게 놀았는데, 술자리의 즐거움이나 관현의 음악은 또한 인간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몇 사람은 영남루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나에게 중건하도록 매우 힘써 권하였다. 나 또한 웅락은 하였으나 마침 큰 흉년이 들어 공사 때문에 백성이 더욱 곤란하게 되겠기에 일을 서둘지 못하였다.

이제 와서는 일년 농사가 풍성하여 백성의 근심이 조금 느슨해져, 관가의 힘을 헤아리지도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경내의 재목을 두루 구하여 들보와 도리의 재목만 겨우 마련하여 물과 물으로 운반하고, 여러 장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2월 보름에 공사를 시작하여 유월에 이르러 공사를 마쳤다.

사치하지도 않고 빈약하지도 않게 하여 완전히 예전처럼 층층의 기둥과 중첩된 누각, 채색 난간과 아로새긴 기와가 용두산과 무봉산 가운데 아스라이 드러나 응천(凝川)과 적벽(赤壁) 사이에 어른거리며, 근심스럽고 답답하던 물색이 도리어 제비와 참새의 하례를 받고, 길가는 사람들도 탄식하던 곳이 도리어 부로(父老)들의 기쁨이 되었다. 고을 가운데 여러 사대부들도 분주히 달려와 구경하고는 손을 맞잡고 칭찬하면서, “우리 고을이 유명한 것은 이 누각 때문이다. 이 누각이 없어짐은 우리 고을을 폐함이요, 이 누

각이 완성됨은 우리 고을이 흥성함이다. 아아, 우리 태수가 부임한 지 얼마 아니 되어 풍년이 들고 백성이 즐거워하며, 쾌재루(快哉樓) 이름난 정자가 불탄 뒤에 돌연 다시 일어나게 되었음은, 어찌 우리 태수의 신명한 공이 아니라!"고들 하였다.

아아, 누각의 흥폐는 또한 절로 그 때가 있는 법이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 더구나 우리 도의 전후 방백(方伯)과 통제사(統制使)께서 명승지가 폐허로 변함을 개탄하고 각기 재물을 내어 조성하였으며, 또한 조정에서도 이 큰 공사가 중도에 그만두게 될까 우려하여 상감께 말씀드려 환곡(還穀)을 나누어 경비를 대도록 함으로써, 이제 여섯 달 안에 일을 마치게 되었으니, 이는 누구의 힘인가? 태수의 공이 아니다. 옛말에 이른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음사(蔭仕)의 길로 벼슬하여 오래도록 필연(筆硯)을 던져두었지만, 그 경영한 사실과 수고한 자취는 전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에 대략 전말을 서술해 둘까 한다.

嶺南樓 卽嶺南第一名勝 而載於輿地者也. 樓居中間傑然高出 而凌波閣枕流堂爲左右翼 宏構勝觀 足以賁飾江山 而爲一路之所艷稱矣. 歲壬寅春 不幸被回祿之灾 樓與凌波枕流 同時延燒 蕩然一灰燼之場 景色愁阻 行路咨嗟 江山自此而無顏色矣. 余於其年秋 以達城通判陞移便道之官 則風物依舊 而遺墟荒涼 裂礎崩瓦 僅存於烈焰之餘 忽憶疇昔之登臨 不禁撫跡而興歎. 遂掃積燼 席地坐 慨然有改構之意. 卽召匠謀之 先起凌波一閣 役數旬始斷手. 時日南至也 是夕外表弟尹侍讀游 掌試左道 試訖 取迂路來訪, 靈山倅李君師尹 自如丞李君重觀 皆會焉. 相與劇遊於是閣 盃酒之歡 絲管之樂 亦浮世難得事也. 數君因以樓之不可無 勸余重成甚勤. 余亦唯唯 而歲適大侵 民事重困於興作 事有未遑焉. 及至今 年事稱豐 民憂少紓 不計官力 不謀衆人 遍求一境之木 僅具棟樑之材 水運陸輸 羣工齊學 始自二月望 至六月乃訖功. 不侈不儉 宛然如古 層楹疊榭 彩欄雕甍 縹緲於龍頭鳳岵之中 輝映於凝川赤壁之間. 景色之愁阻者 反爲燕雀之賀 行路之咨嗟者 還作父老之喜. 邑中諸士大夫 莫不奔走而來觀 拱手而獻贊曰 吾州之有名焉 以斯樓也. 斯樓之亡 吾州之廢也. 斯樓之成 吾州之興也. 嗟吾太守來莅未幾 歲豐民樂 快樓名亭 突然復起於劫灰之餘 豈非吾太守神明之功也. 噫, 樓之興廢 亦自有時 豈容人力. 況我前後方伯 暨統帥 慨勝區之邱墟 各捐財而造成, 且廟堂亦慮巨役之中撤 陳白上前 分糴而繼之. 今得以卒事 六朔之內者 繄誰之力. 非太守之功也. 古所謂因人成事者 非耶. 余由蔭路 久拋筆硯 而若其經紀之實 勤勞之跡 不可無傳. 故畧序顛末云爾.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793)

김광묵(金光默)

오(吳)와 초(楚) 지방 남쪽에 형산(衡山)이 있고, 그 남쪽에 동정호(洞庭湖)가 있으며, 동정호 가에 누각이 있는데 누각의 이름이 악양루이다. 누각 이름을 동정루라 아니하고 악양(岳陽)이라 한 것은 대개 이 누각이 악양 땅에 으뜸이기에 악양이란 이름만이 이 누각의 이름으로 합당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밀양의 영남루에 대하여도 역시 같이 말하겠다. 태백산이 낙동강을 끼고서 남쪽으로 500여리를 달려 밀양에 이르면, 응천(凝川)이 그 어구로 물러들어 솟은 것은 산이 되고 흐르는 것은 강이 되었는데, 그 위에 영남루가 있다. 대개 영남의 명승지로는 오직 이 누각 뿐이다.

이 누각은 신라와 고려 시대의 옛 절이었는데, 절이 없어지고 군수 김주(金湊)가 수리하여 군루(郡樓)로 삼고 절 이름 그대로 누각의 이름을 지었다. 몇 년이 지나 부사(府使) 안질(安質)과 강숙경(姜叔卿)이 다시 수선하였는데 오래잖아 불이 났다. 부사 이희주(李熙疇)가 불탄 터를 치우고 규모를 크게 하여 다시 그 옛 모습대로 복구한지 70년인데, 비바람에 손상되어 도리는 기울고 서까래는 썩어서 지나가는 자들이 무너지려는 바위나 담장처럼 위태하게 여기고 조심하여 오래 앉아 있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니 부사가 말하기를, “누각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부사는 누각의 주인이 되니 부디 계획하여 시작하시라, 내가 장차 도우리라.” 하였다. 이듬해 봄에 부사는 목수를 불러서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어 위태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니, 약간의 인력과 약간의 시일을 사용하여 누각이 완공되었다.

내가 다시 올라가 보았더니 누각의 모습이 바뀌고 강산의 안색이 새로워졌다. 부사가 보잘것없는 힘으로도 애써 큰 일을 해 낸 것을 기뻐하고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무릇 사물이 폐하고 흥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과 때를 기다려 되는 것이로다. 이 누각은 몇 시대 몇 사람을 거쳤으며 나와 부사 두 사람을 기다렸다가 오늘 완성되었도다.” 부사가 나에게 기문을 위촉하기에 느낌이 있어서 시말을 기록한다. 부사는 누구냐? 부사 조휘진(趙翬振)이니, 법도를 지키는 훌륭한 관리로 명성이 있는 분이다.

吳楚南有衡岳 其陽有洞庭湖 湖上有樓 樓名岳陽. 名樓者 不以洞庭 以岳陽 蓋樓甲岳陽可蔽樓. 吾於密州之嶺南樓 亦云. 太白挾洛東 南走五百餘里 到密陽爲凝川 綰轂其口 峙者爲山 流者爲江 其上有嶺南樓 蓋嶺南之勝者 惟此樓而已. 樓乃羅麗古寺 寺廢 知郡金湊 葺爲郡樓. 仍以寺名名. 幾稔 知府安質姜叔卿再繕, 未幾火 知府李熙疇 剔燼宏構 乃復其舊, 迄七十年 爲風雨所剝 棟傾桷朽 過者

戒巖墻不久坐. 日余登其上 知府曰 使樓圯孰執咎. 余曰 知府爲樓主人 其經始之 余將助焉. 翌年春 知府召梓人 易故爲新 莫危于安傭若干力 費若干日 樓乃完. 余又登臨 觚稜改面 湖山出色 喜知府之以拙力辦羸舉. 仍歎曰 凡物廢興 固待人與時. 樓歷幾時閱幾人 待余與知府 成于今日. 知府屬余記. 遂有感記始末. 知府誰 曹侯彙振 有循吏聲.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06)

김재화(金載華)⁷⁰³

밀양에 영남루가 있는 것은 마치 미주(眉州)에 원경루(遠景樓)가 있는 것과 같고 악주(鄂州)에 악양루(岳陽樓)가 있는 것과 같다. 악주에 악양루가 없으면 이는 악주가 없음이요, 미주에 원경루가 없으면 이는 미주가 없음이며, 밀양에 영남루가 없으면 이는 밀양이 없음이다. 대개 이 고을이 천하와 온 나라에 유명한 것은 한갓 이 누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누각이 없으면 비록 이 고을이 없다고 하여도 가하다. 누각의 관계됨이 돌이켜보면 중대하지 아니하나!

이 누각은 영남사의 작은 누각으로, 절이 없어지고 땅만 남아 있었는데 지원 을사년에 부사 김주가 이 누각을 창건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이곳을 대소 사신이 머무는 관사로 삼았으니, 그 소중함이 미주의 원경루나 악주의 악양루보다 더욱 자별한 점이 있다. 중간에 여러번 화재의 재난을 겪었으니 중건하여 수리한 것 또한 이미 두세번이다.

병인년 2월에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누각에 올라 관람하니, 산천의 아름다움과 누관의 장대함이 실로 예전에 들던 바와 합치되었다. 저 원경루나 악양루의 승경을 내 비록 목도하지 못했으나 아마도 이보다 낫지는 않으리라. 다만 누각 동편이 풍우에 침식되어 건물이 기울고 무너졌으며 난간과 현합이 낡아서 무너져 엎어질 우려가 있어 시일이 촉박하였다.

한숨을 쉬며 고쳐 수리할 뜻을 가졌으나, 돌아보니 일은 큰데 힘이 약하여 재물을 모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순상(巡相) 윤공(尹公)에게 품의하였더니, 그곳에 있는 관사가 소중하다고 하여 조전(漕錢)⁷⁰⁴ 2,000폐미를 꾸어다가 이를 민간에 흠어서 그 이식을 취하여 쓰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그 해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마쳤다. 무릇 서까래가 썩은 것은 바꾸어 고

703) 김재화(金載華): 순조 병인년(1806) 2월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정묘년 12월에 임지에서 죽었다.

704) 조전(漕錢): 세곡(稅穀)을 배로 운송하는 조운(漕運) 비용 명목의 예산.

치고, 단청이 흐려진 것은 보완하여 새롭게 하고, 그 나머지 물력으로 능파각을 대략 수리하고 읍승정(揖升亭)을 고쳐 세웠으며, 그 담장에 기와를 이고 그 문간에 채색을 칠하였다.

예전에 탄식하던 곳이 이제 모습이 바뀐 것은 곧 순상의 힘에 의지하였지 나에게 무슨 공이 있겠는가? 돈은 560냥을 썼고, 재목은 대소 290개를 사용하였으며, 목수는 1,139명을 사용하였고, 일꾼은 바깥의 촌락에서 징용하지 않고 다만 읍의 주민과 각 관청의 구실아치를 사용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64일이었다. 뒷날 오는 자가 증거로 삼기 바라며, 이를 기문으로 한다.

密州有嶺南樓 猶眉州之有遠景樓 鄂州之有岳陽樓. 鄂州而無岳陽是無鄂州也,眉州而無遠景 是無眉州也. 密州而無嶺南 是無密州也. 盖是州之名於天下與國中 徒以有是樓也. 無是樓 則雖謂之無是州可也. 樓之所關 顧不重歟. 樓故嶺南寺之小樓 寺廢地留 至元乙巳金侯湊 勑是樓 而仍其名 以之爲大小使星舍館之所 則其所重 譬眉州之遠景 鄂州之岳陽 尤有別焉. 中間屢經回祿之災 重建而葺治者亦已再三矣. 歲丙寅二月 予守是州 登樓而覽焉 則山川之美 樓觀之壯 實愜舊聞 彼遠景岳陽之勝 予雖未覩 想不多上於此. 第樓之東編爲風雨所蝕 棟宇傾圯 欄檻剝落 頽仆之患 迫在時日. 喟有修改之意 顧事鉅力綿 拮据無策 遂稟議於巡相尹公 尹公爲其有館舍之重 許貸漕錢二千緡 取以放散 得其贏餘 迺以是年七月始役 九月告畢. 凡檁桷之朽傷者 易以改之 丹雘之渝澆者 補以新之 以其餘力 略修凌波閣 改建揖升之亭 瓦其墻垣 彩其門闥. 昔也興歎 今焉改觀 寔我巡相之力是賴 顧予何有. 用錢五百六十緡 用材大小二百九十箇 用工匠一千一百三十九名 役丁不用外村 只用府底居民 及各廳官隸 始終爲六十四日. 後之來者 庶有徵焉. 是爲之記.

능파당기(凌波堂記,1825)

이화연(李和淵)⁷⁰⁵⁾

지날 을유년 가을에, 이 못난 사람이 외람되어 은혜로운 명을 받아 이 곳에 부임하였다. 공관의 남쪽에 영남루가 있고, 영남루 곁에 능파각이라는 누각이 있는데 곧 빈관(賓館)이며, 당은 낡아 수리하지 않았기에 장차 황폐하게 될 지경이었다. 이에 막빈(幕賓)과 중수할 것을 의논하니 관리와 백성

705) 이화연(李和淵): 순조 을유년(1825) 7월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기축년 12월에 파직되었다.

들이 모두 좋다고 하였다. 불일간에 경영하고 공사를 마치니 날아갈 듯한 높은 누각이 예전대로 크고 화려하게 되었다. 푸른 산이 둘러서고 맑은 강이 비껴 흐르며 강안의 대나무 물가의 꽃이 뽀뽀하게 숲을 이루었다. 바위의 구름과 골짜기의 안개가 한 빛으로 공중에 떠 있고, 산은 평야 멀찌감치 있으며 들은 깊고 그윽함을 얻어서 참으로 온 고을의 빼어난 경관이다. 마땅히 수리하여 고침으로써 영원히 폐기하지 말아야 하리하다.

粵在乙酉之秋 愧余不才 誤膺寵命 來牧于茲. 公堂之陽 有嶺南樓 樓傍有閣 曰凌波者 賓館也. 堂古未理 將就荒莽. 乃與幕賓 謀所以重新 吏民咸曰 諾. 不日經營 工告其訖 翼如高閣 依舊宏麗 翠岑環立 清江橫流 岸竹汀花 鬱然成林 巖雲壑烟 一色浮空 山焉而平遠 野以得深邃 眞一州之奇觀 宜其修而葺之 永以勿廢也夫.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44)

조인영(趙寅永)⁷⁰⁶⁾

조령 남쪽에 소속된 고을을 헤아리면 70여 곳이니, 그 누대와 정각으로 올라가 볼만한 곳이라 일컫는 곳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다만 밀양의 누각에 영남루라 편액을 붙인 것은 생각건대 그 산수의 경관과 날아갈 듯한 건물의 아름다움이 족히 영남 한 도의 으뜸이 될 수 있음이요, 단지 밀양부지(密陽府誌)에 실린 대로 영남사(嶺南寺)의 옛 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못난 내가 부사의 직책을 수행하며 이곳에 이르러 돌아보며 머뭇거릴 적에 등왕각 악양루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문채와 풍류가 전인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서술한 글이 없었다. 돌아온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이 누각의 나무 색깔과 구름 그림자는 항상 꿈속에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노쇠하고 병들어 죽장 짙고 납극⁷⁰⁷⁾을 신고 여행길을 떠날 수가 없고, 또 벼슬살이로 다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매양 머리를 쳐들고 옷깃을 끌고 멀리 바라보며 서글피 잊지 못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그곳이 두 번 불에 타고 두 번 중건하여 장차 낙성하려 한다고 한다. 부사인 이인재(李寅在) 군은 오래 알던 처지로 나에게 기문을 요구하였다. 나는 여기서 공이 한 일을 위하여 저욕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 그 공사에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비용을 읍에서 장만한 것이

706) 조인영(趙寅永; 1782-1850): 자는 희경(羲卿) 호는 운석(雲石), 풍양인으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순조 19년(1819)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거쳐 헌종 때 영의정이 되어 풍양조씨의 세도를 주도하였다.

707) 납극(臘屐): 밀랍 칠을 한 나막신, 여행길에 소용되는 물품이다.

한 가지 다행이요, 행정하는 여가에 중수 공사까지 하였음은 두 번째 다행이다. 거대하고 굉장한 규모를 능히 예전대로 복구하였으니 세 번째 다행이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 사이에 이름을 붙이도록 하여 끝나지 않은 인연을 이어가게 하였으니 내 자신으로서도 다행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무릇 주군의 업무로는 굳이 농상호구의 증가를 고과(考課)의 우선으로 삼고 누관(樓觀)을 단장하는 일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로부터 누관을 단장하는 일은 이천석의⁷⁰⁸ 선량한 지방 수령에게 있었지, 법규에 구애되는 속된 관리에게 있지 아니하였다. 이 누각을 창건한 것은 곧 원나라 지원 시대에 지군 김주였고, 중수한 이로는 명나라 천순 연간의 부사 강숙경과 가정 연간의 부사 박세후와 우리 영조 갑진년에 부사 이회주와 순조 임진년의 부사 조기복이었다. 그렇다면 이군의 정치는 이 누각으로 또한 미루어 알 만하다. 긴 내와 넓은 들, 큰 강과 늘어선 메뿌리를 빙 둘러 거느리고 있는 것은 모두 옛 기문에 상세하기에 여기서 다시 덧붙이지 않을 뿐이다.

嶺之南 以屬邑計者 七十有餘 其樓臺亭閣之號稱有臨觀者 不可殫記 獨於密陽之樓 額以嶺南者 意其山水之勝 翬革之美 足以押嶺南一路 非特爲府誌所載 因嶺南寺舊址而然也. 不佞會行府至此 顧瞻躊躇 不啻若膝閣岳樓也. 特文采風流 未能及前人 無所述作. 及歸數十年 凡此樓之樹色雲影 常在夢想間也. 雖然 不佞衰且病 不足以竹杖蠟屐 而又非宦跡之更到處 故每爲之翹首引領 惆悵而不能忘. 近聞其再燹而再改建 將落之 府伯李君寅在甫 久款也 要不佞識之. 不佞於此 竊有爲公事幸者 其役不民煩 費自邑辦 一幸也. 政有餘暇 及於修舉 二幸也. 傑構宏制 能復其舊 三幸也 而使不佞 着名於其間 以續夫未了之緣業 則謂之私幸也 亦可矣. 夫州郡之事 固以農桑戶口爲課最 而樓觀之飾 不在也. 然自古樓觀之飾 在於良二千石 不在於俗吏之拘文法者. 如此樓之勑 卽元至元時 知郡金侯湊 而其重修者 有明天順時知府姜侯叔卿 嘉靖時知府朴侯世熙 我英廟甲辰知府李侯熙疇 純廟壬辰知府趙侯基復也. 然則李君之治 以此樓 又可推也. 至於長川曠野 大江列岵之環挹者 皆詳舊記 茲不更贅云爾.

708) 이천석(二千石)의: 한 나라 때 지방 수령의 녹을 2천석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방 수령을 일컫는 말이다.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48)

안인일(安仁一) 709)

누각은 옛 날 영남사(嶺南寺)의 소루(小樓)이다. 절은 없어지고 지원(至元)을사년에 김주(金湊) 공이 지부(知府)로 와서 옛 터에 창건하고 절의 옛 이름으로 누각의 이름을 지었는데, 누각의 형승이 조령 이남에서 첫째로 떨치기 때문이었다. 그 뒤 부사 안질(安質)이 중수하였고, 천순(天順) 경진년에 부사 강숙경(姜叔卿)이 또 중수하였다. 경종 임인년에 불타고 3년이 지난 갑진년에 부사 이희주(李熙疇)가 중건하였으며, 지금 임금 12년 무신년(1848)에 심하게 무너져 부사 조휘진(曹翬振)이 또 중건하였다. 대개 지원을사년으로부터 지금 무신년에 이르기까지 494년 사이에 누각은 모두 네 번 중수하였으나 그 서까래와 단청은 옛 제도에 전주어 덜함이 없고, 산천 경물이 지나간 시대보다 감소됨이 없는데, 다만 그 인물이 잘나고 못난 운수는 고금에 다른 점이 없지 않다. 이는 과연 누각은 중수함으로 인하여 예전 그대로이나, 그밖에 한 번 오르면 한 번은 제거하는 자연의 이치에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어서 그러함일까?

나는 신해년 겨울에 남부(南部)에서 죽북(竹北)으로 걸어가면서 이 영남루 아래 길로 지나가는데, 전에 실컷 보았으면서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 누각에 올라 다시 관람하였다. 이 누각이 관할하여 거느린 것은 모두 산수의 경치인데, 그 산수의 경계를 이룬 것이 기묘하고도 아름답다.

북쪽으로 바라보는 화악산(華嶽山)은 비파산(琵琶山)에서 내려와 평퍼짐하게 걸터앉아 한 고을의 진산(鎭山)이 되었다. 추화산(推火山)은 화악(華嶽)에서 나뉘어서 단정하고 아름답게 국을 만들어 읍의 작은 진산이 되었으며, 이른바 무봉(舞鳳)이 훨훨 날았다가 모여들었는데, 누각은 이곳에 세워졌다.

남쪽으로 바라보면 종남산(終南山)의 빼어난 빛이 누각 처마 아래까지 다가오는데, 그 서쪽은 점필재(佔畢齋)의 서원이다. 그 동쪽으로 작원관(鵲院關)이 그 수구(水口)를 단속하면서 한 누각을 삼킬 듯한 형세이며, 여러 산들이 이리저리 놓여 큰 들판의 아스라한 기운과 어른거린다. 산의 모양과 기세가 대략 이러한데다가, 물은 영정사(靈井寺)⁷¹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에서 고야(古射) 계곡의 물과 합치고, 또 동쪽에서 구연(臼淵)의 하류와 합류하며, 호탄(虎灘)에 이르러서 북천(北川)과 합류하고, 누각 아래에 이르러서는 물이 모여 굽은 못을 이루었는데, 이곳이 응천(凝川)이다. 냇물 빛은 표

709) 안인일(安仁一, 1736-1806): 자는 정침(靜瞻), 호는 죽북(竹北), 광주인(廣州人)이다. 송와(松窩) 안명하(安命夏)에게 소학을 배우고 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의 문장을 좋아하였다. 중년에 죽원리(竹院里)에 이사하여 그곳에서 죽포(竹圃) 손사익(孫思翼), 죽리(竹籬) 손병로(孫秉魯) 등과 중유하였다. 《죽북집(竹北集)》 8권 4책이 있다.

710) 영정사(靈井寺): 단장면에 있는 표충사(表忠寺)의 본디 이름이다.

백한 듯 깨끗한데 돛단배와 갈매기와 백로의 좋은 경치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 누각이 거느리고 있는 조망을 논한 것이다. 그 근본을 논하자면, 태백산이 낙동강을 끼고 내려오면서 일천 갈래 일만 지류를 흠뻑 내어 교남(嶠南) 한 구역을 만들었다. 그 꿈틀거리며 뻗은 형세가 동남쪽으로 300여 리를 달려 작원(鵲院)에 이르면 형세가 모이고 기운 또한 궁하게 된다. 기운이 궁한 곳에서 가득 채워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수토(水土)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신기(神氣)가 감응하는 데는 다만 다지(茶紙)나 적죽(笛竹)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법이다. 그 주민 중에 훌륭한 재능과 덕망을 지닌 자는 또한 어찌 이런 기운이 모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 고을의 인물을 옛날 사적에서 찾아보았다. 문숙공(文肅公)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⁷¹¹과 문충공(文忠公)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은 문장과 도덕으로 동방 백대의 스승이 되신 분이고, 우졸재(迂拙齋) 박한주(朴漢柱)⁷¹²와 송계(松溪) 신계성(申季誠)⁷¹³ 두 선생이 잇달아 일어나 문교(文教)를 크게 천명하였으며, 증상서(贈尙書) 손공(孫公)과 증지신사(贈知申事) 노개방(盧盖邦)⁷¹⁴ 공 또한 절의로 드러났으며,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⁷¹⁵ 공과 태만(苔巒) 안구(安觀)⁷¹⁶ 공과 금시당(今是堂) 이광진(李光軫)⁷¹⁷ 공과 취원당(聚遠堂) 조광익(曹光益)⁷¹⁸ 공과 오한(鰲漢) 손기양(孫

711) 변계량(卞季良; 1369-1430): 자는 거경(巨卿), 호가 춘정이다. 고려 우왕 때 17세로 과거에 급제하고 조선 개국 후에 병을 칭탁하고 출사하지 않다가 태조 5년에 비로소 관직에 나가 여러 관직을 거쳐 20년 동안 대제학의 직책을 맡아 조선조 전장 문물의 수립에 공헌이 많았다.

712) 박한주(朴漢柱): 자는 천지(天支) 호가 우졸재이다. 점필재의 문인으로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헌납 등의 관직을 거쳐 연산군이 등극한 뒤 무오사화 때 점필재의 문도로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에 처형되었다. 뒤에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713) 신계성(申季誠): 자는 자함(子諫), 호가 송계이다. 어려서 송당(松堂) 박영(朴英)에게 수학하고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남명(南冥) 조식(曹植) 등과 교유하며 당대의 고사(高士)로 알려졌다.

714) 노개방(盧盖邦): 자는 유한(維翰), 풍천인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동래 교수관으로 있다가 잠시 귀성하고 있는 사이에 임진왜란이 터지자, 즉시 동래로 달려가 부사 송상현과 함께 순절하였다.

715) 손조서(孫肇瑞): 자는 인보(引甫), 호가 격재이며 일직인이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를 거쳐 여러 관직을 지냈으나, 세조가 즉위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점필재와 교분이 깊었다.

716) 안구(安觀): 자는 사중(思仲), 호가 태만이며 광주인이다. 점필재의 문인으로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연산군 때 예조좌랑으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중종 때 헌납 사간 등의 벼슬과 여러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717) 이광진(李光軫): 자는 여임(汝任), 호가 금시당이며 여주인이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 승정원 승지, 담양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다가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만년에 백곡에 금시당(今是堂)을 지어 소유했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마쳤다.

718) 조광익(曹光益): 자는 가晦(可晦), 호가 취원당이며 창녕인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지극한 효행이 알려져 정려를 하사받고 삼강행실에 그 행적이 등재

起陽)⁷¹⁹ 공과 국담(菊潭) 박수춘(朴壽春)⁷²⁰ 공과 오휴자(五休子) 안신(安珮)⁷²¹ 공과 조경암(釣耕庵) 장문익(蔣文益)⁷²² 공 등이 앞뒤로 계속 출현하여 모두 재행(才行)과 덕망으로 드러났다. 또 한림(翰林) 이태(李迨)⁷²³ 공과 정랑(正郎) 손영제(孫英濟)⁷²⁴ 공과 오우정(五友亭) 민공(閔公)⁷²⁵ 및 나의 7세조인 모렴당(慕濂堂) 안인(安忍)⁷²⁶ 공께서는 모두 높은 재능과 큰 덕망으로 일찍부터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 동산에서 뜻을 즐기며 은거하여 살며 명성을 취하지 않았으니, 우리 고을 문물의 성대함은 여기서 환히 빛나게 되었다.

무신으로서 고려 초기의 손경훈(孫兢訓)⁷²⁷ 장군은 죽어서 성황신(城隍神)이 되었고, 조선조에 이르러 절도사 박연(博淵) 김태허(金太虛)⁷²⁸ 공과 수

되었다.

719) 손기양(孫起陽):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이며 밀성인이다. 한강(寒岡) 정구(鄭逯)의 문인으로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천군수 창원도호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광해군이 즉위하여 정치가 어지럽자 관직을 버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720) 박수춘(朴壽春): 자는 경로, 호가 국담(菊潭)이며 밀양인이다. 정유재란 때 창의 중군하였으며 광해군 때 폐모론을 반대하여 상소를 올렸고,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숭정처사로 자처하여 두문불출하였다.

721) 안신(安珮): 자는 대지(待之), 호가 오휴자이며 광주인이다. 왜란 때 병사 김태허(金太虛)의 막중에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 난후에 오한 손기양의 문하에 수학하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 조정암 장문익 등과 도의를 연마하였다.

722) 장문익(蔣文益): 자는 명보(明輔), 호가 조경암이며 아산인이다. 오한 손기양의 문인으로 정한강과 장여헌 문하에서 학문을 강마하였다. 미수(眉叟) 허목(許穆),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등과 도의로써 종유하였다.

723) 이태(李迨): 자는 중예(仲豫), 호는 월연(月淵)으로 여주인이다. 중종 때 조광조와 같이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으로 발탁이 되어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권신들의 박해를 받아 밀양으로 낙향하였다. 기묘사화 후에 홍문관 응교 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김안로의 전횡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고 돌아와 나아가지 않았다.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을 사사하고,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농암(蘆巖) 이현보(李賢輔), 충재(沖齋) 권벌(權撥),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등과 교유하였다.

724) 손영제(孫英濟): 자는 덕유, 호는 추천이며 밀성인이다.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사헌부 지평, 울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예안현감으로 부임하여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강론한 바 많았고 퇴계선생이 돌아가신 뒤 도산서원을 창건하는데 진력하였다.

725) 오우정 민공(閔公): 삼랑진 강가에 오우정 정자를 짓고 우애가 돈독하였던 민구령(閔九齡), 구소(九韶), 구연(九淵), 구주(九疇), 구서(九敍) 등 오형제이다.

726) 안인(安忍): 광주인으로 중종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은거하였다. 태만 안구와 박재(璞齋) 김뉴(金紐) 등과 종유하였다.

727) 손경훈(孫兢訓): 신라 말기 밀양의 호족으로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를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좌명공신 광리군(廣理君)에 책봉되었으며 삼중대광 사도로 추증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추화산에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모셔왔다.

728) 김태허(金太虛): 자는 여실(汝實), 호가 박연이며 광주인이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사를 모아 팔공산에서 창의하고, 울산가수로 임명되어

사(水使) 손명대(孫命大)⁷²⁹ 공과 같은 분들은 혹 의병을 일으켜 토벌하고 혹 군사를 온전히 하여 국난을 막아내어 그 공적이 국사에 실려 있다. 그 뒤로 장군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근래에 본 바로도 또한 서너 분이 계신다. 속설에는 추화산의 형상이 투구와 같기 때문에 무장이 배출된다고 하니 더욱 징험이 있다 하겠다. 불교도로는 석 유정(惟政)이 또한 임진왜란에 충성한 공훈으로 표충사(表忠祠)에 제향을 받고 있으며, 전불산(全佛山)⁷³⁰과 난비(卵非)⁷³¹라는 이는 또 효성과 열행(烈行)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이것이 모두 영남루의 웅대한 모습이다.

내가 볼 수 있었던 우리 고을의 각 집안 부로들 중에는 문학과 덕기가 한 시대의 존중을 받는 이가 많아서, 바라보면 의젓하고 다가가면 따뜻하여 후생 말학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는 사이에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그 품부받은 빼어난 기운은 반드시 산천의 영기가 서린 것이 아니라고 못할 것이다. 다만 그 기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운수가 매양 인물이 융성하고 잦아드는 사이에 잦아드는 것이고, 그 융성하고 잦아드는 때를 셈하여 보면 대충 다 이 누각이 네 번 중수되는 사이에 해당된다.

아아, 인재란 진실로 시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시대 또한 인재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인물이 일어나고 바뀌는 것은 반드시 그 기운의 성쇠에 따르는 것이다. 금일 산천의 기운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이 누각의 모습은 흐려지는가? 융성해지는가? 양양의 풍물이 예전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 줄을 어찌 알겠는가? 그렇지만 내 이제 헌함에 기대어 바라보니 그 산은 늙지 않았고 그 물은 길게 감돌아 은은한 한 끝의 청숙한 기운이 아직도 총총하게 서려 깨어지지 않았다. 옛적의 산수가 그 신령한 기운을 담아 내었다면 지금의 산수라 하여 그 기특한 기운을 잉태해 냄이 없겠는가? 전일의 운수가 그 기특함을 품부하였다면 후일의 운수라고 하여 그 영특함을 품부하지 않겠는가? 한 고을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크게는 한 도나 더 크게는 한 나라에 있어서도 모두 그 산에 그 물인 것이다.

옛적에 태부 양호(羊祐)가 현산(峴山)에⁷³² 올라 탄식하기를, “우주가 생긴

흩어진 군사를 모아 여러 곳에서 전공을 세웠다. 난후에 경상좌우도 병사, 충청병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역임하였다.

729) 손명대(孫命大): 일직인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영조 때 운봉영장으로 있으면서 이 인좌의 난을 맞아 큰 공을 세우고 좌수사, 제주목사를 역임하였다.

730) 전불산(全佛山): 교남지에는 전불산(全弗山)이라 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여묘 살이를 하였는데, 비바람이 치면 반드시 밤이 새도록 소리쳐 곡을 하였다고 한다.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 또 삼년을 더 살며 그 동안 일체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731) 난비(卵非): 《교남지》에는 난비(蘭非)라고 하였다. 정병(正兵) 김순강(金順江)의 처였는데, 뒤에 버림을 받았다. 부모가 개가시키려고 하자 소리쳐 울면서, “한 몸으로 두 남편을 섬기는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며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한다.

732) 태부 양호가 현산에: 중국의 호북성(湖北省) 양양(襄陽)에 현산(峴山)이 있는데, 진

이래로 이 산이 있었을 터인데 현명하고 통달한 훌륭한 인사들은 인멸되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부휴의 이치⁷³³⁾로 감개의 회포를 부친 데 불과한 것이지만, 다만 소장공의 무진장한 세계⁷³⁴⁾를 불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또 이르기 “후생이 두렵다”고 하였는데, 뒤에 오는 자가 지금만 같지 못할 줄 어찌 알겠는가? 나는 공부자의 교훈에 더욱 찬동하며 우리 고을의 사람들에게 거듭 바라는 바가 그지 없다.

樓古嶺南寺之小樓也. 寺廢 至元乙巳 金公湊 以知府 因舊改剏 錫以寺樓舊名 以樓形勝擅一嶺以南也. 其後府使安公質 重修焉, 天順庚辰 府使姜侯叔卿 又重修焉. 景廟壬寅火 越三年甲辰 府使李侯熙疇重建, 而至當寧十二年戊申 以圯甚 曹侯彙振 又重新之. 蓋自至元乙巳 至于今戊申 四百九十四年之間 樓凡四經修 而其榱桷丹雘視舊制無損 其山川雲物 比過境無減 而獨其人物汗隆之數 不無古今之殊焉. 此果樓以重修之故依古 而其他所以一乘而一除者 有不容人力而然耶.

余在辛亥冬 步自南部歸于竹北 路出斯樓之下 以前所飫見 不忍掠過 迺登斯而更覽焉. 斯樓之所管領者 無非山與水 而爲其山水者 故奇矣美哉. 北望華嶽 自琵琶而來 磅礴踳踳 爲一府之鎮山焉. 推火分華嶽 端麗作局 爲府小鎮. 所謂舞鳳者 翩翩翔而後集 樓於斯建也. 南望則終南秀色逼軒楹之下 其西佔畢之院宇也. 其東鵲院 綰轂其口 供一樓平吞之勢 諸山錯置 與大野縹緲之氣 相掩映焉. 山之體勢 大較如是 而水自靈井發源 東南合姑射之水 又東合白淵下流 至于虎灘北 合北川 到樓下 匯爲曲潭 是爲凝川. 川光如練 有帆檣鷗

(晉)나라 양호(羊祜)가 양양 태수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기에, 백성들이 그를 위해 비석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비석을 바라보는 자 모두 눈물을 흘렸기에 타루비(墮淚碑)라 하였다.

733) 부휴(浮休)의 이치: 부휴는 생사(生死)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장자(莊子)》 <각의(刻意)>에 “사는 것은 떠도는 듯, 죽는 것은 쉬는 듯[其生若浮 其死若休]”이라고 하였는데, 하늘의 이치를 순순히 따라서, 사는 것도 정처 없는 듯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를 말한다.

734) 소장공(蘇長公)의 무진장한 세계: 송(宋)나라의 문인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에 이르기, “변하는 것으로 보자면 천지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사물과 나는 모두 무진한 것”이라 하였고, 또 “천지간의 사물은 각기 주인이 있어서 내 소유가 아니면 터럭 하나라도 취하지 못하지만, 다만 강상의 청풍과 산간의 명월은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색을 붙여 취하여도 금할 자 없고 사용해도 고갈됨이 없으니 이는 조물주의 무진장이요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것”이라 하였다.

驚之勝。

然而 此以一樓之所領 論其所眺 而其祖宗 則太白挾洛江而下 散出千派萬枝 扞嶠南一區 以其蜿蜒邈迤之勢 東南走三百餘里 至于鵲院 勢結而氣亦窮 氣之所窮 盛而不過 則其水土之所生 神氣之所感 茶紙笛竹 不能獨當 其民之魁奇材德者 亦豈無斯氣之所鍾者耶。吾以吾州之人物 求之於古 春亭卞文肅公 佔畢金文忠公 以文章道德 爲東方百世之師 朴迂拙 申松溪 兩先生 繼而起 大闡文教 贈尙書孫公 贈知申盧公 亦以節義顯 若格齋孫公 苔巒安公 今是堂李公 聚遠堂曹公 聲漢孫公 菊潭朴公 五休子安公 釣耕庵蔣公 前後相望而出 俱以才行德望著 又有若翰林李公 正郎孫公 五友閔公 及吾七世祖慕濂堂公 皆以高才碩德 早謝簪組 樂志丘園 幽居而不用名 吾鄉文物之盛 於斯煥矣。

武臣則 麗初孫將軍兢訓 死而爲神於城隍 至于本朝 如故節度博淵金公 暨水使孫公 或倡義征討 或全師捍禦 功績載於國乘 其後闔鉞不絕 而輓近所覩者 亦有三數公 俗以推火狀如兜鍪 故武將輩出 尤驗云 異教則釋惟政 亦以壬亂忠勳 享表忠祠 全佛山卯非者 以孝烈留名於世 此皆嶺南樓之大觀也 吾猶及見吾鄉之各家先父老 多以文學德器爲一世矜式 望之儼然 卽之溫然 足使後生末學起敬於觀感之餘 則其所稟賦之秀 未必非山川之所鍾靈也 獨其氣數升降之運 每每相尋於人物污隆之際 而以其污隆計之 則約略同歸於斯樓四重修之間也。

噫 人固繫乎時 而時亦繫於人 故人物之興替者 必隨其氣之盛衰焉 今日山川之氣 升耶降也 斯樓之觀 污耶隆也 安知非襄陽風物 昔是而今非耶 然而余今憑軒而試望焉 其山不老 其水長回 隱隱有一端清淑之氣 尙蓊蔚而不破矣 昔之山水 鍾其神 今之山水 獨無孕其奇耶 前之氣數 稟其奇 後之氣數 獨不賦其靈耶 在一州而然 則大而一道 又大而一國 皆是山是水也 昔羊太傅登峴山 歎曰 自有宇宙 便有此山 而由來賢達勝士 湮滅無聞 此不過以浮休之理 寓感慨之懷 而獨不念蘇長公無盡藏 自其不變而觀之乎 又曰 後生可畏也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吾於孔夫子之訓 尤無間 而重有望於吾州者 不窮也。

유영남루기(遊嶺南樓記, 1768)

유휘문(柳徽文)⁷³⁵⁾

조령 남쪽에 산수가 이름난 곳에 누각을 세운 곳이 매우 많으나, 밀양의 영남루가 으뜸이다. 정해년 9월에 나는 일이 있어 남방으로 왔다가 마침 중앙절이 되어 두 객과 함께 밀양으로 들어갔다. 이 고을은 북쪽으로 추화산⁷³⁶⁾을 등지고 남쪽으로 웅천 가에 있는데 관청과 민가가 비늘처럼 차분하게 몇 리에 도사리고 있다. 남문은 강물에서 수십 걸음 떨어져 있고, 남문 안에서 동쪽으로 보면 산모퉁이에 덩그렇게 물을 베고 있는데 그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누각이 곧 이른바 영남루이다. 이 누각은 동편으로 능과 각과 통하는데 이곳은 곧 이 고을의 객관이다.

영남루는 하나의 거대한 깊고 검푸른 물에 임하여 있는데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꺾였다가 동쪽으로 흐르고, 다시 남쪽으로 꺾여 바다로 들어간다. 큰 들이 평탄하게 펼쳐져 50리나 환하게 뿔려 있으며, 해양이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으니, 이곳은 곧 영남 지방 여러 강물이 모두 모이는 곳이다. 서쪽으로 바라보면 먼 산이 덩그렇게 감싸 우뚝 서 있는데, 서남쪽 10리 밖에 있는 것이 고암(高巖)이고, 그 남쪽 뾰족하게 수려한 봉우리가 춤추는 봉황처럼 팔장을 끼고 서 있는 것이 남덕봉(覽德峰)이다. 강물 동편에 산기슭 하나가 꿈틀거리며 빙 둘러 있는 것이 용두산이며, 남쪽으로 30리를 달려 두 강을 막아 수구를 닫고 있는 것이 삼랑진이며, 해양 바깥으로 푸르스름한 층층의 봉우리는 김해와 웅천(熊川)의 산들이다. 매양 한여름에 물이 불어나면 삼랑진 이북의 들은 질펀하게 큰 호수가 되고, 바다의 조숫물은 삼랑진을 지나 멈추는데, 칠성(七星)⁷³⁷⁾ 하구(河口)와 100여리 거리에 있다. 이것이 그 형승의 대략이다.

서로 술을 따라 마시며 술기운이 오르면 황금빛 국화를 먹고 은어를 맛보다가 우뚝 일어나 멀리 거대한 하늘과 툭 트인 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시원하여 세상의 영욕과 득실을 도무지 잊어버리니 참으로 즐겁다. 옛날의 선현들이 읊은 제영(題詠)은 승람(勝覽)에 실린 것은 이들 풍경 열 중에 한 둘 정도에 불과하지만, 강산의 수많은 경물은 예나 지금이나 바뀔 것이 없으니, 비로소 누각의 편액이 거짓이 아님을 믿을 수 있겠다. 이날 고을의 태수가 누선(樓船)을 띄우고 음악을 베풀어 누각 아래 맴도니 바라보면 그림과 같아서 유관(遊觀)의 한 승경을 도우기에 충분하였다.

735) 유휘문(柳徽文; 1773-1833): 자는 공晦(公晦), 호는 호고와(好古窩), 안동 수곡(水谷)에 세거한 전주인이다. 족조인 동암(東巖) 유장원(柳長源)과 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736) 추화산(推火山): 본문의 화황(火隍)은 추화산을 일컫는다.

737) 칠성(七星); 김해의 낙동강 하구에 있었던 칠점산(七點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능파당의 동편으로 대나무 사이의 오솔길을 뚫고 구불구불 올라가면 암자 하나가 있는데 무봉암(舞鳳庵)이라고 한다. 대개 남덕봉을 마주하고 있다고 이를 취하여 명명한 것이다. 대밭이 엉성하여 그 사이로 푸른 강물이 가려 어른거리며 홀연 도시 가운데 산림을 이루었으니, 그 또한 특이한 경치이다.

무릇 이 고을에 이런 강산이 있는데 이런 누각이 없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누각이 있는데 이런 암자의 보조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고금에 이 누각이 있는 이래로 각기 그 당한 사정에 따라 즐거움으로 삼는 바가 같지 않을 것이나, 높은 데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한 때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동일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비록 옛사람에게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사물을 보고 흥을 부쳐 마음을 화창하게 하고 세속의 누를 씻으며 일신의 운치를 그득하게 얻음이 있는 데는 스스로 고금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니, 어찌 한갓 헛되이 휘파람 불며 어정거리는 소일거리로 돌리고 말 수 있겠는가? 인하여 이 생각을 기록하여 서로 경계한다. 함께 따라 놀았던 이는 족제(族弟)인 회서(羲瑞) 옥문(旭文)과 박용원(朴用元) 시대(時泰)이다.

嶺之南 名山水而樓者甚多 而密之嶺南爲第一. 歲丁亥九月 余因事南來 遂以重陽日 同二客入密州. 州北負火陁 南畔凝川 公衙民舍 鱗鱗焉盤據數里 南門距水數十武 自南門之內 東見山角嶮然枕水而樓閣崢嶸其上者 卽所謂嶺南樓也. 東與凌波閣通 卽州之客館也. 樓俯臨一泓紺碧激灩 自東而西 復折而南而東 又南折入海. 大野平鋪 晃朗五十里 海陽橫割其中 卽嶺南諸水之總會也. 西望遠山 彎抱壁立 西南十里外者 曰高巖, 其南遠峯尖秀 拱立如舞鳳者曰覽德. 水東一麓 蜿蜒紆迴者 曰龍頭, 南走三十里 蹲踞以捍兩江合口者 曰三郎, 海陽之外 縹緲層巒者 金海熊川諸山也. 每盛夏水漲 三郎以北之野 漫爲巨浸 海潮之吐納 過三郎而止, 去七星之口 百餘里 此其形勝之大略也. 相與酌酒微醺 餐金菊 賞銀口 陡倚遠眺 宏麗爽濶 胸襟灑灑 都不知世間榮辱得喪爲何物 甚可樂也. 昔賢題詠 比勝覽所載 十居一二 江山雲物 今古無改 始信樓扁之不誣.

是日 州太守放樓船張樂 沿洄於樓下 望之如畫 足以助遊觀之一勝. 凌波之東 穿竹逕 逶迤而上 得一僧寮 曰舞鳳. 蓋取對覽德而名之也. 叢竹蕭疎 蒼江掩映 忽作城市山林 亦異境也. 夫是州之有是江山 不可無是樓 有是樓 不可無是庵 爲之助焉. 第古今有是樓者 各隨其所遇以爲樂者不同 而其登高望遠 取快一時 人人之所同也. 今吾輩雖不及古人 卽物寓興 以暢心腑 滌塵累 充然有得於日新之趣者 自謂無古今之殊 豈可徒歸於放浪嘯遨之資而已哉. 因錄之以相警從之遊者 族弟羲瑞旭文 朴用元時泰也.

능파당상량문(凌波堂上樑文, 1642)

이이정(李而楨)

일이란 운수에 관계되어 일어나고 바뀌나니, 오늘의 일은 성대하고
땅은 사람으로 인하여 폐하고 흥하나니, 이 당을 건축함은 다행이로다.

들보에는 무지개가 걸리고
기쁨은 건곤에 넘쳐나네.

우리나라에 산이 솟고 내가 흐르면서부터
이 땅의 명승지가 사람 입에 오르내렸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시작하여 높은 길에 임하여 문을 열었으며,
어느 시대 어느 날에 층층 절벽에 버티어 문지방을 걸쳐놓았나?

망호당(望湖堂) 폐하고 김부사가 창건한 것은 홍치 연간이요
억석암(抑石庵) 무너지고 원(元)부사가 중수한 것은 임진 병신 난리 뒤로
다.

이에 50년이 지나 홀연 강릉(江陵)의 불이 활활 타올랐고
다행히 천재일우의 때를 만나 다시금 경복(景福)의 제도 넉넉함을 보네.

생각건대 우리 명부(明府) 합하께서는

천연스럽게 운옥(雲屋)⁷³⁸을 이루시어
사업은 동루(銅樓)⁷³⁹처럼 높습니다.

구중궁궐로부터 직책을 받아 “네 가서 다스리라”는 명을 경건히 받들고
백 리 지방의 교화를 펼쳐서 풀 위로 부는 바람처럼 교화를 크게 행하니,

문서 처리하는 여가를 바쳐
면밀한 생각을 간절하게 하시어

파릉⁷⁴⁰의 온갖 폐기된 일 일으키고

738) 운옥(雲屋): 구름 같은 집.

739) 동루(銅樓); 삼국시대 위(魏)의 조조(曹操)가 업성(鄴城)의 서북쪽에 지었던 대인
동작대(銅雀臺)를 가리키는 듯.

740) 파릉(巴陵); 중국 호남성(湖南省) 악양현(岳陽縣) 서남쪽의 고을 이름.

자경⁷⁴¹)의 규모를 확충하였습니다.

등왕각(滕王閣)을 중수한 일을 본받아
홍중(弘中)이 만든 제도를 넓혔으니,

재목은 아침이 되자 산처럼 쌓이고, 도끼 휘두르는 자 구름 같으며
백성은 소문을 듣고 자식들처럼 몰려와, 삼을 짊어진 자 저자 같았네.

같은 일시에 한꺼번에 시작하여, 동쪽은 능파당이요 서쪽은 영남루,
한꺼번에 거행하여 둘 다 온전히 하니, 저쪽은 으뜸이요 이곳은 다음.

규모가 제도에 합당하고
높낮이 적중함을 얻어

여룡⁷⁴²)의 궁궐을 굽어보니 그림 도리의 광채는 청작(靑雀)을 흔들고
푸른 마름 우거진 물가 곁에 임하여, 주렴 그림자에 갈매기 떨어지네.

버선에 먼지 일 듯 달빛을 찰랑찰랑 밟는 것은 헌함 밖의 능파선자(凌波
仙子)요

파도를 노로 삼아 물 가운데 둥둥 뜬 것은 베개 밖의 태을진인(太乙眞
人)⁷⁴³)이로다.

소녀를 노래 부르는 곳에 벌이니, 풍규⁷⁴⁴)가 저녁에 활짝 열리고
항아(姮娥)를 춤 자리에 끌어오니, 달 휘장이 저녁에 몽롱함이로다.

보배로운 오리향로는 연기를 토하여 향기가 침실에 어리고
금항아리 벽을 머금어 전송하는 자리에 광채 빛나네.

저 함벽루(涵碧樓)가 어찌 무게를 다투랴!
저 영호루(映湖樓)도 나란히 달릴 수 없도다.

741) 자경(子京): 송(宋)나라 하남(河南) 사람으로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으로 발탁되었
다가 악주(岳州) 태수로 좌천되었던 등종량(滕宗諒)의 자가 자경이다. 범중엄(范仲
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의하면 등자경은 경력(慶曆) 4년(1044) 봄에 파릉(巴陵)
군수로 부임하여 그 이듬해 악양루(岳陽樓)를 중수하였다.

742) 여룡(驪龍): 검은 빛의 용.

743) 태을진인(太乙眞人): 만물 생성의 주체가 되는 최상의 신격이 태을(太乙), 또는 태
일(太一)인데, 대개 북극의 천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태을선인(太乙仙人).

744) 풍규(風閨): 바람이 통하도록 작게 만든 문.

어진 원님의 생각에서 나온 조치이니 이는 실로 웅장한 계획이요
이름난 동산에 낙양의 성쇠가 달렸으니 거기에 좋은 일이 있음이로다.

어영차 달구질 소리 지축을 울리니 귀신의 무리 일을 돕고
우뚝하고 아스라이 하늘에 걸리니 음양의 열고 닫음이로다.

감히 연작(燕雀)처럼 하례하는 마음으로
이에 상량(上樑)의 노래를 도우노라.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운문산 푸른 빛이 공중을 쓸었구나.
산 밖에 부상의 봉래섬이 가까우니
헌함에 기댄 사람 산들바람을⁷⁴⁵⁾ 모는구나.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사공 불러 물 건너려고 나그네 말에서 내리는구나.
긴 피리 한 소리에 가는 비 걸히더니
푸른 하늘 물과 같고 물은 쪽빛 같네.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들과 늪에 용비늘처럼 눈에 벼가 가득하네.
평야의 풀 우거진 길에 해가 지는데
농부 어부 노래 소리에 앞 시내 목이 매네.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향교를 열어 둔 곳 청금⁷⁴⁶⁾이 모였구나,
명궁과 성묘는⁷⁴⁷⁾ 아스라히 높은데
글 읽는 소리 양양하여 추로⁷⁴⁸⁾의 풍속이네.

들보를 위로 던지니
하늘 궁궐 구름 속에 올리는 소릴 들리네.
눈 아래 못 산들은 자손들과 같은데

745) 산들바람: 《장자(莊子)》에 “열자(列子)는 산들바람을 타고 노닐다가 보름이 지난 뒤에야 돌아오곤 하였다”는 말이 있다.

746) 청금(靑衿): 향교에 출입하는 유생들은 옷깃을 푸른 색으로 장식하였다.

747) 명궁(明宮)과 성묘(聖廟): 향교의 정당인 명륜당(明倫堂)과 문묘(文廟)인 대성전(大聖殿).

748) 추로(鄒魯):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고장. 선비의 기풍이 전하는 곳.

긴 무지개 뿔어내어 만 길 높이 치솟네.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향기 어린 배게 머리에 옥 술잔이 오가네.
매화 꽃 대나무 잎은 사시사철 봄인지라
봉황 난새 관현악은 밤낮이 없네.

엮드려 원하옵건대, 상량한 뒤로

산천은 호구를 부지하고
온갖 사물 상서를 바쳐

옥촉(玉燭)이 현도(玄都)에 깃들여 향기가 널리 퍼지고
금고(金膏)는 자동(紫洞)에 넘쳐서 경색을 가만히 골고루 퍼며,

성읍은 변화하여 당 아래 등불 빛이 틈이 없이 비치고
백성은 고무되어 거리에 사람들이 취하여 하늘 조화 모르게 되도록.

事關數而隆替 今日之舉 盛哉
地因人而廢興 此堂之構 幸矣.

梁橫蟠螭
喜溢乾坤

自岳瀆流峙於我邦
伊名勝膾炙於茲土

誰營誰始 臨峻路而啓扉
何代何辰 據層崖而橫闕

望湖廢而金侯創 弘治年中
抑石壞而元宰修 壬丙亂後

茲經五十載 忽見江陵之火炎炎
幸值千一秋 再覩景福之制橐橐

惟我明府閣下

天成雲屋
業峻銅樓

分憂九重 敬承汝往之命
宣化百里 大行草偃之風

屬簿領之餘閒
念綢繆之方切

興巴陵之百廢
擴子京之規模

體滕閣之重修
恢弘中之制作

材崇朝而山積 揮斤者如雲
民應響而子來 荷鍤者成市

并時偕作 東是堂而西是樓
一舉兩全 彼爲甲而此爲乙

規模合度
高下得中

俯瞰驪龍之宮 畫棟光搖青雀
傍臨綠蘋之渚 珠簾影落白鷗

塵生襪 步月盈盈 檻外凌波仙子
浪爲楫 中流泛泛 枕外太乙真人

列少女於歌筵 風闌夕敞
引姮娥於舞席 月幌宵隴

寶鴨吐烟 香凝燕寢
金缸含壁 光耀列餞

彼涵碧 焉得以爭衡

伊暎湖 不能以竝軌

出賢宰心匠之措置 此實雄圖
係名園洛陽之盛衰 其有勝事

呼邪皐鼓之動地 神朋鬼備
嵬峨突兀之橫天 陽開陰闔

敢將燕雀之賀
庸贊兒郎之謠

拋樑東 便覺雲門翠掃空
山外扶桑蓬島近 倚檻人是御冷風

拋樑南 喚渡蘋洲稅客驂
長笛一聲微雨捲 碧天如水水如藍

拋樑西 原濕龍鱗禾滿畦
落日平郊芳草路 農歌漁唱咽前溪

拋樑北 周庠闢處青衿集
明宮聖廟鬱嵒嶢 絃誦洋洋鄒魯俗

拋樑上 悅聞天闕雲和響
群山眼底若兒孫 氣化長虹騰萬丈

拋樑下 凝香枕上飛瓊甃
梅花竹葉四時春 鳳笙鸞管靡日夜

伏願上樑之後

山川扶戶
雲物呈祥

玉燭棲於玄都 薰腴廣被
金膏溢於紫洞 景貺潛周

城邑繁華 堂下燈光無隙地
黎庶鼓舞 街頭人醉不知天

영남루중수상량문(嶺南樓重修上樑文, 1832)⁷⁴⁹⁾

조기복(趙基復)⁷⁵⁰⁾

팔백 리 강변 고을에 우연히 주목⁷⁵¹⁾으로 머무르며
일천 년 풍물에 단청을 거듭 환하게 하였네.

예전대로 함이 어떠하랴!
온전하게 하면 그만이지.

예로부터 밀양 웅부(雄府)로 일컬었음은
영남루 이름난 누각이 있었기 때문.

새 을(乙)자 강가에 물길 처음 나누니, 대개 지원 연간의 큰 사찰이었고
갑진년에 옛 규모로 증건하고, 그리고 강숙경이 온 뒤에 삼영⁷⁵²⁾을 세웠
네.

이는 곧 능파각 침류당과 더불어 영화롭고
이에 형봉⁷⁵³⁾과 나산⁷⁵⁴⁾이 빛을 더하는 바로다.

지세는 칠십 고을을 혼드나니 축석루와 어깨를 견주어 더하고

749) 이 상량문은 밀양사람 이장한(李長漢)의 《추남유고(推南遺稿)》에 계묘년(1843) 중수 시의 영남루상량문으로 실려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동일하다. 읍지에 이미 조기복의 상량문으로 수록되어 있고, 본문 또한 고을 수령이 스스로 중수의 경과를 서술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읍지에 따라 작자명칭과 연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향내 문사가 지방 수령을 위하여 대작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 《추남유고》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처와 연대를 아울러 밝혀 뒷날의 상고에 대비한다.

750) 조기복(趙基復): 순조 신묘년(1831) 7월에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임진년 2월에 영남루를 증건하였다.

751) 주목(朱墨): 붉은 먹으로 문서를 처리하므로 잡무가 많은 지방관의 직책을 일컫는 말이다.

752) 삼영(三楹): 가운데 기둥 세 개. 정면 다섯칸의 규모이다.

753) 형봉(瑩峰): 서거정의 밀주십경에도 형봉초욱(瑩峰初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영남루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앵봉산(鶯峰山)을 가리키는 듯.

754) 나산(羅山): 밀양 시가지 서쪽에 있는 고개인 나현(羅峴), 일명 일현(日峴) 또는 아현(阿峴)을 가리킨 듯.

물자는 동남의 연해로 모여드니 동래 왜관이 손가락질 할 곳에 있다.

십리 대나무 밭에 건너 임하고
일천 경 밤나무 숲에 비껴 마주하며,

여염집 가까우나 농경지가 이어졌고
관현악 어리어서 단판(檀板)을 치는구나.

마암산 그윽한 꽃은 봄철 태수의 푸른 술잔에 삼삼하고,
무봉암 성근 종소리는 밤에 외로운 객의 유람선⁷⁵⁵에 이르네.

빈 들보의 달빛은 이상사(李上舍)의 몽혼이 의연하고
한 장대 빛소리는 기이하다, 가야산의 시구런가?

다만 고을살이가 곧 여행객과 같아서
누대의 모습을 미쳐 고치지 못하였네.

별자리 옮기고 사물이 바뀌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와는 부러지고 도리도 꺾어 비바람에 훑날리게 되었네.

최호의 시에 읊은 풀 우거진 앵무주⁷⁵⁶ 가요
이익의 눈에 가득한 근심, 관작루⁷⁵⁷ 앞과 같네.

그리하여 유람객은 오지 않고
이로부터 명승지도 무색하였네.

대개 관사를 증축 수리함은 관청 행정의 한 가지 일인지라
이에 나는 문서처리 여가에 관리들과 더불어 다함께 의논하였네.

755) 유람선: 원문의 오방(烏榜)은 '검은 빛의 노'인데 호수에 띄운 유람선을 가리킨다.

756) 최호(崔顥)의 시: 당나라 시인 최호의 등황학루 시에 "봄 풀은 앵무주에 무성하고
[春草萋萋鵲洲]"라는 구절이 있다.

757) 이익(李益)의 눈에 가득한 근심: 관작루(鵲雀樓)는 중국의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에 있었던 누각이다. 당나라의 시인 이익의 <등관작루(登鵲雀樓)> 시에, 관작루 앞에 일백 척 돛대/ 물가의 자옥한 나무 함께 망망하구나/ 한나라 북과 피리소리 공연히 물에 흘러가고/ 위나라 산천은 반나마 석양이로다/ 지난 일은 천년이 되어도 빨리 간 것 같고/ 근심은 하루 동안이라도 길기만 하네/ 바람 연기 아울러 고향 생각 일으키니/ 멀리 보며 봄 아니어도 절로 상심되구나"[鵲雀樓前百尺檣 汀洲雲樹共茫茫 漢家蕭鼓空流水 魏國山河半夕陽 事去千年猶恨速 愁來一日即爲長 風烟并起思鄉望 遠目非春亦自傷]"라고 하였다.

그 제도는 대략 전대의 규모를 본뜨고
재물로는 평소의 경상비를 축내지 않았으며,

지도리와 문기둥, 창틀은 각기 제대로 적합함을 얻었고
난간과 받침대와 대청과 창도 모두 다 갖추었네.

자좌(子坐) 오향(午向)으로 산은 아로새긴 듯 물은 갈아 놓은 듯 아름답고
임진년 진월에 평이 나래치듯 새가 깃털을 간 듯 완공하니,

긴 하늘 삼키고 먼 산을 머금었으니 자경이 예전 호수의 누관을⁷⁵⁸⁾ 증축
함이요

솟은 산은 푸르고 흐르는 강 붉으니 자안이 강가의 누각에⁷⁵⁹⁾ 새 부를 지
음이로다.

그러나 숨고 드러남에도 때가 있거니와
아니면 다시 수리함도 운수가 아닐런지?

긴 들보 들어올림에
좋은 노래 펼치노라.

어랑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용두암은 옥부용을 깎아 내었네.
봄 풀에 부슬부슬 봄비 그치니
자고새는 영산홍에 날아 내리네.

어랑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붉고 푸른 기와가 텅빈 하늘에 가지런하네.
국포⁷⁶⁰⁾의 연꽃 향기 삼십 리인데
푸른 나귀 살짝 밟으며 석양에 소리치네.

어랑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니

758) 자경(子京)이 호수의 누관을: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경
력 4년 봄에 등자경(滕子京)이 파릉(巴陵) 군수로 좌천되어 와서, 명년에 정치가 시
행되고 주민이 화합하여 온갖 일이 흥성하게 되자, 이에 악양루를 중수하였는데, 그
옛날의 규모를 증대시켰다”고 하였다.

759) 자안(子安)이 강 가의 누각에: 자안은 당나라의 문인 왕발(王勃)의 자이다. 왕발은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지었다.

760) 국포(麴浦): 수산에 있는 국농소(國農沼)의 다른 이름이다.

삼랑강 강 빛이 쪽빛보다 푸르다.
일만 섬 들이 용양선⁷⁶¹이 일제히 바람을 타니
수선(水仙)이 잉어 타고 달 속에 담소하는 듯.

어랑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배개 머리 시들한 꿈이 서울에 혼미하다.
봄바람에 잔뜩 취해 저녁 늦게 바라보니
강의 꽃과 강의 나무 끝이 없구나.

어랑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지는 노을 외론 따오기 분분히 오고가네.
물소빨은 먼지 물리치고 옥은 추위 물리치는데
난간의 북두성은 광채 서로 흔들리네.

어랑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도화랑 가는 물결 말처럼 흘러간다.
안개의 갈매기야 함부로 시기하지 말아라
세상엔 그래도 망기⁷⁶²한 자 앞드려 있으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상량한 뒤로는

조숫물 소리처럼 늡지 않고
검푸른 산처럼 길게 머물러

거문고도 치고 바둑도 두는 가련할 사 죽루의 좌천된 나그네⁷⁶³는,
한 잔 들고 시 한 수 읊으며 저 난정의 주인을⁷⁶⁴ 부러워하지 않도록.

八百里江鄉 偶淹朱墨,
一千年雲物 重煥丹青.

761) 용양선(龍驤船): 진(晉)나라 용양장군(龍驤將軍) 왕준(王濬)이 거느렸던 수군처럼
용맹한 수군의 전함.

762) 망기(忘機): 세상의 기미를 잊어버림.

763) 죽루(竹樓)의 좌천된 나그네: 송나라의 문신 왕우칭(王禹偁)은 자가 원지(元之)인
데, 황주(黃州) 군수로 좌천되어 그곳에 죽루를 세우고 그 기문을 지었다.

764) 난정(蘭亭)의 주인: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는 자가 일소(逸少)인데, 난정(蘭
亭)에서 계회를 열고 그 기록을 <난정기(蘭亭記)>로 남겨 지금까지 전한다.

仍舊如何
苟完而已。

自古稱密陽雄府
以其有嶺南名樓。

乙字江上流肇分 盖云至元間大刹，
甲辰歲舊規重拓 尚記叔卿後三楹，

是乃 凌波枕流之與有榮
於焉 瑩峯羅山之所增耀。

地勢擅七十之郡 矗樓殆肩比而過，
物貨湊東南之沿 萊館在指點之際。

平臨十里竹樹
斜對千頃栗林，

閭閻近而桑柘連
絲管凝而檀板拍。

馬山幽萼 春媚太守之綠樽，
鳳菴疎鍾 夜到孤客之烏榜。

空櫟月色 依然李上舍夢魂，
一竿雨聲 異哉伽倻山詩句。

第官居便同逆旅
而樓臺未遑改觀。

星移物換 曾日月之幾久，
瓦摧棟折 任風雨之所飄。

崔顥之詩 上頭芳草鸚鵡洲畔，
李益之愁 滿目雲樹鸛雀樓前。

遊人自是不來

勝地從此無色。

大凡館宇增修 亦繫官政之一事，
肆予簿牒餘暇 爰暨將吏而僉謀。

其制也畧倣前規
以財則不煩經用。

櫺闌楮楔各得其宜
欄楯軒窓無不畢備。

坐叶子 向點午 山雕水礮，
歲在壬 月建辰 翬飛鳥革。

吞長含遠 子京舊增湖樓，
聳翠流丹 子安新賦江閣，

而顯晦亦有時者
抑修葺豈非數歟。

助舉脩櫟
載陳善頌。

兒郎偉拋櫟東 龍轡削出玉芙蓉
春草霏霏春雨歇 鷓鴣飛下映山紅

兒郎偉拋櫟西 朱甍碧瓦洞霄齊
麴浦荷香三十里 青驢颯踏夕陽嘶

兒郎偉拋櫟南 三浪江色碧於藍
萬斛龍驤齊上颿 水仙騎鯉月中談

兒郎偉拋櫟北 枕邊殘夢迷京國
沈醉春風夕望賒 江花江樹無終極

兒郎偉拋櫟上 落霞孤鶩紛來往
犀辟塵埃玉辟寒 闌干星斗光相盪

兒郎偉拋樑下 桃花細浪流如馬
寄語烟鷗莫謾猜 世間猶有忘機者伏

伏願上樑之後,

潮聲不老
黛色長留

宜琴宜棋 可憐爾竹樓遷客
一觴一詠 不羨它蘭亭主人.

영남루중건상량문(嶺南樓重建上樑文, 1844)

김흥근(金興根)⁷⁶⁵⁾

명승지는 천지의 운수에 관계되니 폐하고 흥하고 이루고 허물어짐을 알 수 있고,
거대한 건축은 귀신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니, 규모와 제도 또한 그리하여 편안함이로다.

화재를 겪으면서 회회출출⁷⁶⁶⁾하였고
지세를 감싸안아서 반반균균⁷⁶⁷⁾하네.

이곳 영남루 이름난 누각 살펴보니
곧 낙동강 동편의 웅장한 고을에 있네.

신라 시대 법계를 처음 열었던 곳을 차지하여 도리와 들보 올려 시원하게 하였고,
내이(策夷)의 칙칙한 섬과 층층 바다를 당겨 바라보면 배와 함정을 묶어 이어 놓은 듯.

765) 김흥근(金興根; 1796-1870): 자는 기경(起卿), 호는 유관(游觀), 안동인으로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순조 25년(1825)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요직을 거쳐 안동감씨의 세도가 한창 때인 철종 때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766) 회회출출(誚誚出出): 화재의 조짐. 춘추시대 송(宋)나라의 태묘(太廟)에서 회회출출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고, 또 은(殷)나라 사당에서 새가 우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 뒤에 큰 화재가 나서 태묘가 불탔다.

767) 반반균균(盤盤困困): 반반하고 덩그렇게 큰 모양.

명승지로 홀로 이름 떨쳐, 특별히 조령 밖 칠십 고을 이름을 표출하였고,
신명이 부지하여, 지원(至元) 연간 이후로 육 백 년이 되었네.

변화하고 부귀 화려한 형국을 차지하여
거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기대었으니,

바람이 배 한 번 띄우면 가는 거리에, 남녘 오랑캐 고을 용굴의 사립문⁷⁶⁸⁾
이요
구름이 일만 집 저자를 덮었으니, 굴조개 지계문의 찰벼와 게와 고기로다.

태호(太湖)의 삼만 육천 경 물결은 지금도 안석 앞에 파도치고
남조(南朝)의 사백 팔십 사찰⁷⁶⁹⁾은 어느 곳의 안개비 내리는 누대인가?

좌천된 나그네와 시인들이 감탄하는 바요
유민과 옛 부로(父老)들이 서로 전하는 이야기로는,

장대 하나에 신선의 자취 남겨, 성근 비 지나가면 낭랑히 읊조리고
일만 대나무가 객지의 꿈에 나타나 신령스런 바람 몰래 남은 한을⁷⁷⁰⁾ 하소
연했네.

서늘한 배에 닻줄을 맴은, 틈을 낸 여러 사람들이 근심을 삭임이요
일산 날리고 방울 울림은, 춘령을 시행하는⁷⁷¹⁾ 자사의 놀이로다.

노래하고 춤추는 기녀를 뒀은 여기서 벼슬하러 다니는 사대부를 접대함
이요,
살찐 생선 낚아 빈객과 막료에게 권함은 따라온 자제들을 위로함인지라.

이 또한 정령(政令)으로 고생하고 편안함을 조절함이니
이로써 물색(物色)은 태평시대를 장식함으로다.

768) 용굴(榕橋)의 사립문: 용수(榕樹)와 굴나무가 자라는 남방의 나라.

769) 남조(南朝) 사백 팔십 사찰: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강남춘(江南春)> 시에,
“천리 길에 피꼬리 울러 푸른 앞에 붉은 꽃 어른거리고/ 물가의 마을 산 아래 촌에
술집 깃발 펄럭이네/ 남조 사백 팔십 사찰/ 수많은 누대가 안개 비 속이로다[千里鶯
啼綠映紅 水村山郭酒旗風 南朝四百八十寺 多少樓臺煙雨中]” 하였다.

770) 신령스런 바람: 이상사(李士翁)의 꿈에 아랑(阿娘)의 원혼이 나타난 일을 가리킴이
다.

771) 춘령(春令)을 시행하는: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봄이 되면 춘령을 시행하
여 악정(樂正)으로 하여금 음악을 정비하게 한다고 하였다.

맞수로는 봉황대⁷⁷²)와 황학루이나, 축석루는 백중이 되기에 모자라고
교룡(蛟龍)의 못과 굴조개의 굴에 기운을 뿜으니, 능파당과 함께 신선이 살
만하네.

밤낮으로 떠 있는 동남쪽 먼 하늘은 푸르려 가까운 들에 푸른 빛 늘어지고,
달과 별 함께 위아래 충충 뒹는 푸르게 솟아 날 듯한 누각에 단청이 흐르
네.

고요한 그림자 황홀하고 물위에 광채가 찬란함은 악양루기에 갖추어 썼고,
먼 산 삼키고 평원의 여울 끌어당김은 월파루⁷⁷³)의 경치와 어떠하냐?

오직 크고 화려함은 이곳이 가장 성대하니
마치 견고하여 움직일 수 없는 듯하네.

어찌하여 사관(司燿)⁷⁷⁴)이 직분을 못 지켰나?
홀연 울유(鬱攸)⁷⁷⁵)의 재난을 당하였네.

바람이 비람⁷⁷⁶)을 충동하여 수미(須彌)의 겁화(劫火)가 이마에 이르고
별자리 대화성(大火星)을 범하여 상구(商邱)의 재앙이 마음을 놀라게 하니,

구름 속의 기와와 기둥은 가련타 초토가 되고
도리에 불이 붙어 모조리 재가 되어버렸네.

높고 밝은 신선 누각을 굽어보니, 이는 실로 조물주의 장난이요
개연히 등람할 뜻 있으나, 누가 중건할 책임을 감당하랴!

다행히도 어진 수령이 절제사의 책임을 맡았기에

772) 봉황대(鳳凰臺): 중국 남방 금릉(金陵)에 있었던 대.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 시에 “봉황대 위에 봉황이 노닐다가/ 봉황이 떠나
대는 비고 강물만 절로 흐르네/ 오나라 궁전의 화초는 깊숙한 오솔길에 묻히고/ 진
나라 시대 의관은 낡은 언덕이 되었는데/ 삼산은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떨어지고/
두 물 가운데로 백로주가 나눴었네/ 도무지 뜬 구름은 해를 능히 가리는 지라/ 장안
을 보지 못해 사람을 근심케 하네[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丘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
라고 하였다.

773) 월파루(月波樓): 황해도 황주 읍성 남쪽 황주천 가의 절벽 위에 있었던 누각 이름.
승선루(昇仙樓), 용금정(湧金亭)이라고도 불렸다.

774) 사관(司燿): 옛날 주(周)나라 때 불을 관장하는 관리.

775) 울유(鬱攸): 화재를 일으키는 신의 이름이다.

776) 비람(毘嵐): 천지가 생성되고 괴멸될 때 일어난다는 맹렬하고 빠른 폭풍.

이 공사에 재목을 모으고 목수를 갖추었네.

잡초 무성한 황폐한 터를 살펴보니 아직도 전형이 남아 있고
깨진 기와 무너진 담장에 방불함을 찾아서 마음을 많이도 허비하였네.

그 사람 없으나 그 터에다 짓는데 어찌 시절이 못하고 힘이 약하다 하라
행정으로 시행하고 마음에 결심하였으니 저절로 반 일로도 공은 배가 되네.

아아, 이 일의 성취는 금일을 기다렸음ियो
오직 경영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에게 달렸음이로다.

거북점 시초점 맞고 선비가 따르고 백성도 따라 모든 의논 합치되고
도끼와 톱을 든 자 자귀와 칼을 든 자 못 장인이 다투어 달려와서,

실을 살피고 궁을 그리고 도리, 기둥, 판자, 헌합, 기와, 전돌을 다스리면 그
만인데
구심 투각⁷⁷⁷⁾에 동자기둥, 서까래, 주두, 소로, 지도리, 설주, 쇠서 등은 각
기 제대로 적합하네.

온 성 사람이 다 일어났으니 어찌 관리와 목수만 부지런하고 잘했으리,
아홉 길 힘들인 공 우뚝 서니 귀신이 설치하고 옮겨 놓은 것 같네.

달 오르고 구름 머물도록 옛 터를 넓히고
바람벽과 온돌방을 만들어 새 건물 환하게 하였네.

풍경은 보기에 다름없으나 온갖 기교를 다하였고,
강산은 이제부터 안색이 나니 형상에 맞추어 지세를 바꾸었다.

동그렇게 솟은 것은, 뒤에 폐하지 않고 앞보다 사치스럽지 않으며
거대하고 화려하나니, 위에 앉을 만하고 아래에도 깃대 세울 만하여,

제운루⁷⁷⁸⁾ 낙성루⁷⁷⁹⁾처럼 높고

777) 구심투각(鉤心鬬角): 목조 가옥의 중심부에 갈고리 모양으로 깎아 목재를 연결시킨 부분이 구심(鉤心)이고, 지붕 모서리가 서로 잇닿아 있는 모양이 투각(鬬角)이다. 모두 장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나타낸다.

778) 제운루(齊雲樓): 당나라 때 섬서성(陝西省) 화현(華縣)에 있었던 누각.

779) 낙성루(落星樓): 중국의 삼국 시대 오군(吳郡)의 건업(建鄴) 동북쪽에 세웠던 삼층의 거대한 누각.

바람을 거느린 듯⁷⁸⁰⁾, 허공에 기댄 듯⁷⁸¹⁾ 호탕하네.

몇 년 동안이나 한 지방 사람들이 탄식하였나?

오늘에서 일 백 척 높이 우뚝 솟았도다.

고니와 학 다투어 선 것처럼 물은 열어서 넓은 듯 산은 더하여 높은 듯,
제비와 참새 낙성을 축하하여 관리는 뜰에서 경하하고 농부는 들에서 기뻐
하네.

이 지방 시험함에 사람이 화평하고 정치에 여가 있음이니 어찌 초목과 토
석과 물과 샘만 그러하랴!

이 누각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 편안하나니 다만 갈매기와 안개 구
름과 대나무만 보이네.

대충 완공하였으니 아름답게 간직하여 이제 옛 규모를 바꾸지 말라.
처음 창건하였으니 꾸며 다듬는 것은 가만히 뒷사람에게 바라노라.

잠시 노반⁷⁸²⁾의 끝을 치우고
장차 파리⁷⁸³⁾의 노래 들어 보시라.

어랑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용두못의 수려한 빛 맑은 공중에 꽃혔다.
남여(藍輿)를 타고 하루 종일 봄 놀이 다녀오니
한 지방 전답이 일만 가구로 통하였네.

어랑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물가 가득 우거진 풀은 푸름이 무성하다.
그림배에 멀리 나와 노는 사람 취했으니
장간(長干)이 아니오 큰 독이라 하리라.
어랑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맑은 비단 가을 그림자 맑은 못에 거꾸러졌네.
연꽃에 해가 지는 삼랑진 포구에는

780) 바람을 타고[御風]: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열자(列子)는 바람을 거
느리고 다녔다”고 하였다.

781) 허공에 기댄 듯[憑虛]: 송나라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에 “허공에 기대어 바람
을 몰고 그칠 곳을 알 수 없는 듯 호탕하다[浩浩乎如馮虛御風而不知其所止]”고 한
구절이 있다.

782) 노반(魯般):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이름난 기술자 공수반(公輸般).

783) 파리가(巴里歌): 속된 노래.

지나는 이 언제나 가던 말을 머무르게 하네.

어랑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상강의 대와 연나라 밤숲에는 봄이 배를 찢 듯하구나.
어진 원님 기뻐함은 소봉래를 얻음이니
세속의 천호 식읍(食邑) 셈에도 아니드네.

어랑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층층 기와 첩첩 서까래가 푸른 산에 이어졌다.
거문고와 술두루미 맑은 여가에 다 먹지 마라
서울이 아스라이 북두성 곁에 바라된다.

어랑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맑은 강 한 구비가 늠실늠실 쏟아진다.
이름난 고을은 모두가 벼 익고 고기 살진 고장,
일만 척 배 바람 타고 말처럼 상쾌히 달리는 듯.

엎드려 원하옵건대, 상량한 뒤로

날아갈 듯 항상 새로워서
새나 물고기 각자 즐기고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에 호탕한 선비의 기상 덜지 않으니
묘한 춤 맑은 노래에 노부의 흥이 어찌 알겠는가.

단청은 변함없이 풍월과 함께 길이 남고
공무에 한가한 날 많아서 관리와 백성이 함께 즐기기를.

성상께서 즉위하신 10년 갑진 중하에 정현대부 병조판서 겸 규장각 제학
김흥근(金興根)이 짓다.

勝地關於氣數 廢興成毀 可得而知之。
傑構運於神謀 規矩制度 亦所以安也。

經劫灰乎禧禧出出
抱地勢而盤盤困困

睽茲嶺南名樓

迺在洛東雄府

占羅代之法界初地 敞以爲負棟架櫟
挹萊夷之疊嶼層溟 望之若連鰭縻艦

彤勝獨擅 特表大嶺之外七十州
神明相扶 粵自至元而後六百載

據繁華富麗之局
憑宏傑瓌奇之觀

風趁一帆之程 蠻鄉之榕橘扉兒
雲委萬家之市 蜺戶之杭稻蟹魚

太湖三萬六千波 至今波濤几席
南朝四百八十寺 何處烟雨樓臺

遷客騷人之所賞歎
遺民故老之相傳說

留仙跡於一竿 疎雨飛過朗吟
憑客夢於萬竹 靈風暗訴遺恨

繫纜冷鷁 乘暇之羣公銷憂
飛蓋鳴騶 行春之刺史遊衍

藏歌舞蓄妓女 于焉接遊宦士夫
繫肥鮮命賓僚 所以勞從事子弟

是亦政令之節勞佚
於以物色之賁昇平

敵手若鳳臺鶴樓 惟礪石差爲伯仲
噓氣乎蛟潭蜃窟 竝凌波可居神仙

浮日夜東南遠天混碧 邇野延綠
與月星上下層巒聳翠 飛閣流丹

沉靜影耀浮光 岳陽之述備矣
吞遠山挹平瀨 月波之勝何如

惟巨麗斯爲盛焉
若堅固不可動者

豈意司燿之失職
忽見鬱攸之告災

風鼓毘嵐 須彌之劫至頂
星犯大火 商邱之祲驚心

雲中薨楹 可憐焦土
焰上棟宇 盡歸殘灰

瞰其高明之居 此實造物者戲耳
慨然登覽有志 誰任修舉之責乎

幸賢守虎符分憂
伊茲役鳩材庀匠

憑睇眇於荒榛蕪草 尙有典型
求髣髴於破瓦頽垣 積費心思

逸其人因其地 寧嘆時詘舉羸
發於政作於心 自當事半功倍

嗟成就有待今日
惟經理是誠在人

龜從筮從士從民從 僉謀允合
斧者鉅者斤者刀者 衆工爭趨

考室畫宮 棟楹板檻蓋瓦薨級甃 治之則已
鉤心鬥角 宋桷檣櫨椳栳牯楔 得其各宜

百堵皆興 奚但吏勤而工善

九仞斯屹 有若鬼設而神輸

拓舊墟於月地雲階

煥新構於風榭燠室

風景無異舉目 獻巧呈奇

江山自此生顏 合形轉勢

穹然起者 毋廢于後 毋侈于前

偉乎華哉 可坐於上 可建於下

齊雲洛星高矣

御風憑虛浩然

幾年一方之咨嗟

是日百尺之突兀

鶴鶴爭峙 水若闢而廣 山若增而高

燕雀賀成 吏相慶於庭 農相忭於野

試是邦人和政暇 豈獨草木土石水泉

登斯樓心曠神怡 但見沙鳥烟雲竹樹

苟完矣美有矣 茲勿替於舊規

草芴之修飾之 竊有望矣來許

暨徹魯削

且聽巴歌

阿郎偉拋樑東 龍巒秀色插晴空

藍輿盡日行春返 一路桑麻萬井通

阿郎偉拋樑西 滿汀芳草綠萋萋

畫船客裔游人醉 不是長干是大堤

阿郎偉拋樑南 瑩羅秋影倒清潭

荷花落日三郎浦 長遣行人駐去驂

阿郎偉拋櫟北 湘簟燕栗春如織
賢侯喜得小蓬萊 不數塵間千戶食

阿郎偉拋櫟上 層薨疊桷連青嶂
琴尊不盡餉清閒 京國迢迢依斗望

阿郎偉拋櫟下 清江一曲溶溶瀉
名州儘是稻魚鄉 萬帆乘風如快馬

伏願上櫟之後

翬革常新
禽魚自得

良辰美景 豪士之氣不除
妙舞清歌 老夫之興豈淺

丹腹無改 共風月而長留
朱墨多閒 與吏民而同樂

聖上卽阼之十年甲辰仲夏 正憲大夫 兵曹判書 兼奎章閣 提學 金興根 題。

능파각상량축문(凌波閣上櫟祝文, 1844)⁷⁸⁴⁾

유세차 갑진(1844) 6월 병신삭 13일 무신에 헌관 이방제(李邦悌)는 감히 성조지신(成造之神)께 환하게 고하나이다. 한 구역 명승지에 영남루가 있기에 능파각이 있어서 흥폐를 함께 하나니 신의 노력이 완연히 보입니다. 능파각의 규모는 예전대로 본떠서 날아갈 듯한 지붕이 나래를 드리운 듯 암사자를 그린 주춧돌 이어놓고, 바깥 기둥 이미 세우고 가룟대 모두 올리고 이제 마룟대 올림에 예를 갖추 희생과 폐백을 올립니다. 상량문을 지으려니 앞서 서술에 구비되어 있거니와 이름난 누각 뛰어난 경관은 이제부터 더욱 화려할 것이기에 이에 짧은 노래로 삼가 신을 즐겁게 하나이다. 뒷날 왕명을 받든 사신이 부절을 받들고 멀리 임하여서 북녘 대궐 바라보며 찬탄하

784) 이 상량축문은 2002년 10월 능파당 변화공사를 하면서 마룟대 아래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원본을 박물관에 보관하였다.

고 하례하며 임금의 교화가 남방을 덮도록 신께서 묵묵히 도우시고 부디
강림하시어 흠향하시옵소서.

維歲次甲辰六月丙申朔十三日戊申 獻官幼學李邦悌 敢昭告于
成造之神

一區形勝 因樓有閣 同時廢興 神功宛覲 樓貌重新 閣制倣古
飛翬垂翼 畫貌連礎 旁柱既堅 橫桷盡舉 今拋上樑 禮陳牲幣
欲製兒郎 前述備矣 名樓勝槩 自此益侈 茲庸短唱 穆將愉神
皇華異日 榮戟遙臨 贊賀拱北 宣化被南 維神默佑 庶斯降歆 尚
饗.

崇禎紀元後四甲辰六月十三日巳時

府使 通訓大夫 李寅在

成造都監 幼學 李邦悌

監官 出身 鄭弼得

閑良 金昌胄

色吏 記官 丁友轍

記官 朴道洽

座首 幼學 朴麟宅

行首 軍官 李潤恒

吏房 記官 尹洪柏

書寫 記官 李時馨